

미래 금융을 열다

금융교육의 혁신,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금융애널리틱스 분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18년 가을학기 입학
금융공학 석사
금융애널리틱스
(Financial Analytics) 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① 금융공학과 IT 융합형 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

② 세계 유수 대학에서 금융 분야 교육

재학생 전원 1학기 해외연수(혹은 복수학위) 필수로 Global Practice 이해

③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실습 교육

워크스테이션이 구축된 트레이딩 룸에서 실제 금융기관 수준의 교육 환경 제공

④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능력 배양 교육

논문 작성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석 능력과 연구능력 배양

모집 기간 2018.04.06(금)~04.17(화) 예정

입시 정보 KAIST경영대학 입학 <https://www.business.kaist.ac.kr/admission>

관련 교과목 금융공학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Computational Finance, 알고리즘 거래 및 정량적 거래 기법, 빅데이터와 금융자료 분석, 횡단면 금융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위험 분석, 금융보안 설계론, 핀테크 개론,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운영, 시뮬레이션 방법론 신용리스크 모형 및 신용파생상품 등

FRONTIER

KCB INSIGHT

Green Growth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녹색경쟁과 SF: <위터월드>에서 <다운사이징>까지
HBR/SMR BEST ARTICLE REVIEW
FORTUNE WORLD NEWS UPDATE

KCB NEWS

KAIST 경영대학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나에게 투자하세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KCB ALUMNI

공적개발원조 시장에서 강화된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KAIST 경영대학은 시도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 곳입니다
SI 사업 전문 경영인, 이충환 아티스트 대표를 만나다

KCB GIVING

KAIST 경영대학의 벤처창업 육성 위해 3억원 후원
한민회 교수 정년 퇴임 기념 김도형 동문(테크노MBA 99학번, 57I) 1천만원 기부
졸업 20주년을 맞은 TMBA 95학번(17I) 1억원을 기부하다
김현철 동문(EMBA 07학번, 47I) EMBA 총동문회에 1억원 기부

Vol. 80 SPRING 2018



LEARNERS BECOME LEADERS



KAIST 최고의 교수진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탁월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역대 진행한 주요 기업 맞춤형 과정

CEO 및 임원급		중견관리자급
삼성그룹 사장단 최고정보경영자과정 SKT 정보통신복합학문 임원과정 SK그룹 사장단 eBusiness 과정 CJ그룹 AMP과정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글로벌리더과정 현대중공업 글로벌리더과정 GS그룹 고위임원과정 대우조선해양 글로벌리더과정	공기업 eBiz 임원과정 산자부 eBiz 임원과정 POSCO 디지털 eBusiness 최고경영자과정 검찰청 검사장 혁신 교육과정 기업은행 임원과정 제일모직 패션비즈니스리더과정 S-OIL Executive Development	1995 2000 2005 2010 2018
		SKT 정보통신복합학문 관리자과정 KDB 금융공학 단기과정 SK eBusiness 중간관리자과정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글로벌전문과정 아주그룹 GMP 기업은행 금융전문가과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리더과정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공학과정 푸르덴셜생명 금융보험전문가과정 삼성전자 주재원후보양성과정 한국투자금융지주 금융전문가과정 삼성SDS 기술경영과정 매일유업 차세대리더양성과정 KEB 하나은행 고급디지털마케팅과정
		KT 테크노경영단기과정 신한은행 금융단기과정 조흥은행 금융경영자과정 우리금융그룹 금융아카데미과정 CJ그룹 GMP과정 서울아산병원 메디컬메니지먼트과정 제일모직/제일기획 Creative Planning LG 디스플레이 GMP 신한은행 고급기술금융과정 S-OIL 리더십개발과정 기업은행 전략기획과정 한화금융 미래금융과정 IBK 디지털기술과정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KAIST EXECUTIVE EDUCATION

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02-958-3981

존경하는 KAIST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KAIST 경영대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책임과 의지력이 강한 동물인 황금 개띠의 해인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AIST 경영대학은 지난해 '경영공학 후배사랑 장학금' 모금 행사를 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기부해 주신 심덕섭, 김선경 동문을 비롯하여 여러 동문 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석박사 과정생들의 학업과 연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졸업 20주년을 맞은 테크노MBA 1기 졸업생들께서는 큰 뜻을 모아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테크노MBA 5기 김도형 동문께서는 한민희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1천만원을 기부해 주셨고, 이그제큐티브MBA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현철 동문께서도 1억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동문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영대학은 올해 경영공학 박사과정 해외대학 교수 임용 수가 누적 30명이 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더불어 KAIST 경영대학은 '벤처 창업의 요람'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난해 벤처경영 교육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고, AVM 동문 기업이자 CIE 포럼 회원이신 제이스텍(정재송 회장)과 동아엘텍(박재규 회장)에서 각각 1억원 기부, 경영대학의 발전위원이신 이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님께서 약 1억원 상당의 주식 기부, 강종길 AVM 동문께서 1천만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기부자 분들의 뜻과 SK그룹의 사회적기업가MBA 후원에 힘입어 실용적인 연구와 응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혁신 벤처를 성장시키는 세계 최고의 벤처 육성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업교육과 함께 경영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영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Business Analytics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전통적인 강점인 계량분석에 Big data, AI 등의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경영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결합한 Business Analytics Curriculum을 통해 KAIST 경영대학이 차별화된 경영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중심에는 동문 분들과 기부자 분들의 후원이 핵심 요소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은 KAIST 경영대학과 재학생 후배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동문, 학생, 기부자, 교수,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KAIST 경영대학만의 뛰어난 연구역량과 혁신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KAIST 경영대학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장 김 영 배

Youngbae Kim



FRONTIER

Vol. 80 SPRING 2018



KCB INSIGHTS Green Growth

- 06 Green Growth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글. 녹색성장대학원 김상협 초빙교수, 녹색경영과 지속가능금융 연구센터장
- 08 HBR BEST ARTICLE REVIEW <The Surprising Power of Online Experiments>
정리. 박지용 박사과정(경영공학 15학번)
- 10 SMR BEST ARTICLE REVIEW <Reshaping Busines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 최승우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번)
- 12 FORTUNE WORLD NEWS UPDATE
정리. 신주현, 진소정 기자
- 14 녹색경영과 SF: <워터월드>에서 <다운사이징>까지
글. 류성한 동문(경영공학 박사 10학번)
- 16 IT와 함께 우리 삶으로 성큼 다가온 녹색 바람
글. 유은 기자
- 18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뉴 프론티어
글. 정혜림 기자

<Frontier 25기 학생기자단>

김상원 정보미디어MBA sangwon.kim@kaist.ac.kr
신주현 녹색경영정책 석사 joohun0813@kaist.ac.kr
유은 경영공학 박사 selesua@kaist.ac.kr
진소정 녹색경영정책 석사 ginsj@kaist.ac.kr

노영철 테크노MBA ycnho@kaist.ac.kr
안세진 프로페셔널MBA sejinahn@kaist.ac.kr
정혜림 녹색경영정책 석사 hyelim79@kaist.ac.kr

KCB NEWS

- 20 KAIST 경영대학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신임교원 소개(권주희, 김동규, 이광준)
- 22 제4회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 개최
우수한 경영 사례 발굴하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기회 가져
- 23 당신의 셀바 킹에게 투자하세요
사회적기업가MBA 4기 졸업 기념 사업 발표회
- 24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김병기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번)
- 25 동문들의 열정으로 부활한 '2017 KAIST RUN'
- 26 2017 KAISTVAL
웃음 가득한 흥릉 캠퍼스!
- 27 KAIST, KAIST, Beyond Knowledge!
2018년도 KAIST 경영대학 신입생 워크숍,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하다
- 28 한마음 한뜻, 우리는 하나!
2017년 홀커밍데이와 창업어워드 시상식
- 30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4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성료
- 31 홍콩에서 배운 금융지식,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다
2017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
- 32 KCB NEWS 단신
- 34 BOOK REVIEW

KCB ALUMNI

- 36 공적개발원조 시장에서 강화된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박재홍 동문(환경경영정책 석사 02학번)
- 38 배움을 함께 나눈 선후배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이준 & 김수진 부부 (정보미디어MBA 15, 16학번)
- 40 KAIST 경영대학은 시도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 곳입니다
경동나비엔 홍준기 부회장(테크노MBA 95학번, 17기)
- 42 SI 사업 전문 경영인,
이충환 아이티센 대표를 만나다
아이티센 이충환 대표(최고경영자과정 19기, 2011년 졸업)

KCB GIVING

- 44 KAIST 경영대학의 벤처창업 육성 위해 3억원 후원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이사, 박재규 ㈜동아엘텍 대표이사,
이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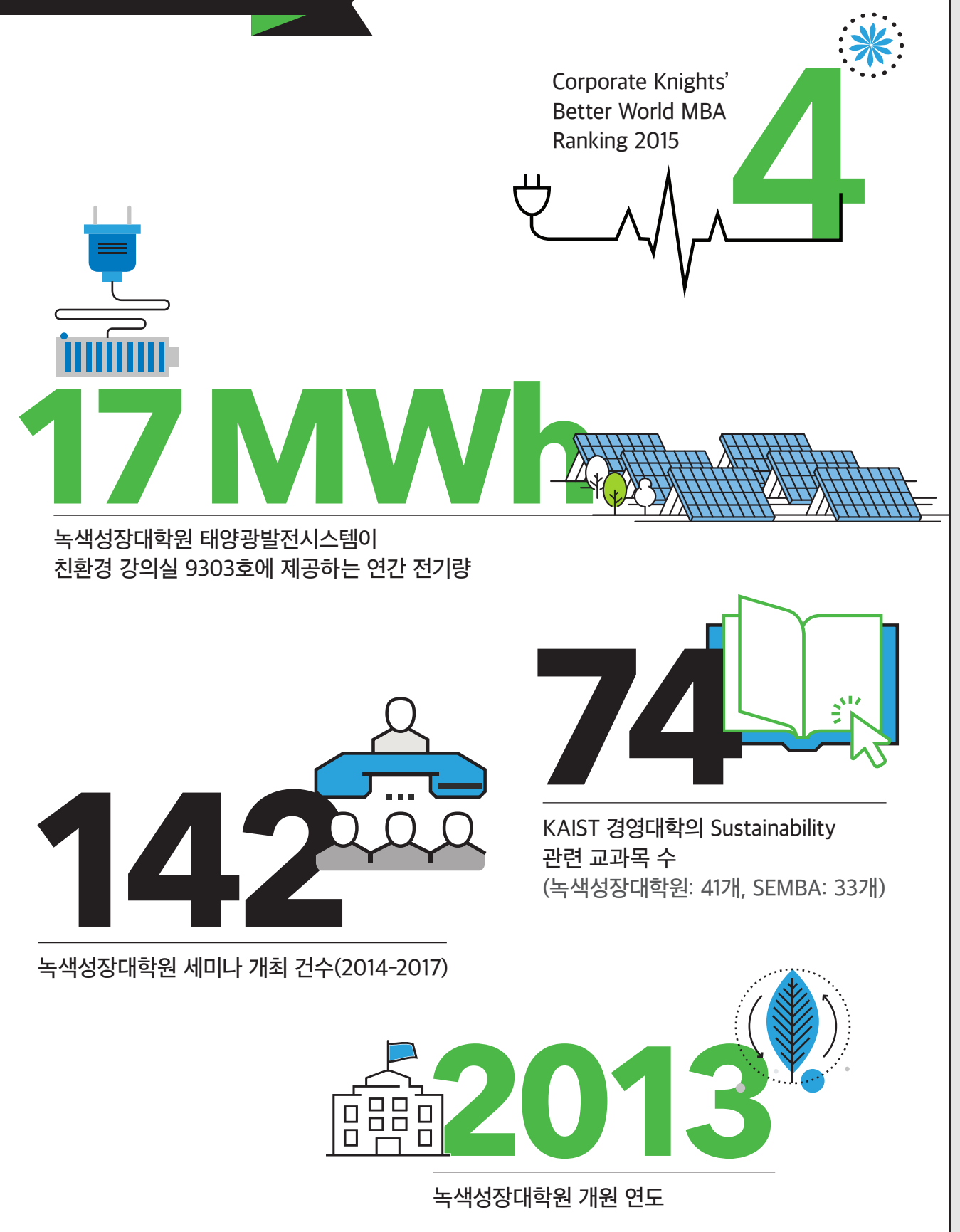
KAIST 경영대학은 머리를 깨우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김도형 동문 (테크노 MBA 99학번, 57기) 1천만원 기부
- 45 졸업 20주년을 맞은 테크노MBA 95학번(17기),
1억원을 기부하다
테크노MBA 1기 강의실 명명식 개최

김현철 동문(이그제큐티브MBA 07학번, 4기),
EMBA 총동문회에 1억원 기부
- 46 발전 기금 기부 현황

Vol. 80 SPRING 2018

발행일 2018년 3월 14일 발행인 김영배
기획·편집 KAIST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발행처 KAIST 경영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Tel. 02-958-3083 Fax. 02-958-3088
www.business.kaist.ac.kr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Tel. 02-3447-7601

숫자로 보는 KCB



Green Growth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글. 녹색성장대학원 김상협 초빙교수, 녹색경영과 지속가능금융 연구센터장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야심찬 에너지 전환에 착수했다. 에너지와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는 전례 없는 변화의 흐름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녹색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떠오른 중국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계기로 오는 204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10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금조달에 5조 달러 가량의 갭이 있지만 시중에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돈이 70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 상하이에서 에너지포럼을 개최한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츠(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가 밝힌 내용이다. 노르웨이, 사우디, UAE의 국부펀드와 주요국 연기금, 블랙 록,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자산운용 규모를 감안할 때 ‘돈 자체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각계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한 이 에너지 포럼의 궁극적 화제는 누가 과연 이런 천문학적 기회를 주도할 것인가로 집중되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녹색개발’을 부단히 이끌어온 중국이 선진국을 제치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대 국가로 떠오른 중국은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이를 연결시키며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석권하기도 했다.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와 그린 다이아몬드

기실 이 같은 흐름에 중국보다 한 발짝 앞섰던 나라가 한국이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따라잡은 한국, 기후변화 시대는 이끌어 나가자라는 모토로 지난 2008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것이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라는 인류 최대의 도전을 새로운 성장과 발전

의 동력으로 삼자는 역발상의 패러다임이다. ‘Grow first, Clean up later’ 즉, 환경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성장부터 하고 보자는 종래의 경제개발론을 극복하고 ‘Return to Nature’ 환경이 중요하니 공장의 문을 닫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환경 근본주의도 넘어 ‘경제와 환경이 함께 가는 길(Go Green while Growing)’을 찾자는 시도였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니콜라스 스톤 런던 정경대(LSE) 교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방지할 경우 금세기 말까지 글로벌 GDP가 20%까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는데 녹색성장은 이 같은 ‘외부성(Externality)’을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로로 전환한다면 수십조 달러가 걸린 미래 시장의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청와대 직속 범정부 기구를 두고 국가목표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스마트 그리드 진흥법, 녹색건물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특히 녹색성장 선언 직후 찾아온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녹색 뉴딜’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GDP의 2% 이상을 녹색-신성장 동력과 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일명 ‘녹색 예산(Green Budget)’을 5년 연속 실행,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LED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각적 국제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이 OECD, 세계은행, UNEP, G20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한국의 주도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의 신설, UN 녹색기후기금(GCF)의 본부 유치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녹색

기술센터(GTC), KAIST 녹색성장대학원(GSGG) 등이 잇따라 출범하며 전략-재원-기술-인재로 이어지는 이른바 ‘그린 다이아몬드’ 아키텍처가 한국에 구축되었다. 문제는 정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사례에서 보듯,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중장기 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하고 부침한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KAIST와 우리들의 미래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의제가 더 이상 국내 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맥락이다.

그린빅뱅과 4차 산업혁명, 아직도 기회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야심찬 에너지 전환에 착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녹색산업 생태계와 지정학적 이니셔티브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세상은 지금 에너지와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한국은 이 모든 걸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세상을 바꿀 ‘그린 빅뱅(Green Big Bang)’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맥킨지와의 공동연구 결과, 녹색산업의 4대 축이라 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의 시장 규모는 ‘상호작동성(Interoperability)’을 감안할 때 2020년이면 1조 달러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측됐다.<그림 1> 특기할 것은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한

국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유기적 산업 생태계로 묶는 ‘플랫폼 리더십’은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제주도의 그린빅뱅 전략은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며 2017년 기준으로 불과 4년 만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6%에서 14%로, 수백대에 불과하던 전기자동차가 1만대를 넘어서는 수직 상승의 결과를 보여줬다. 아직 미완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제주 모델은 UAE와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코스타리카까지 수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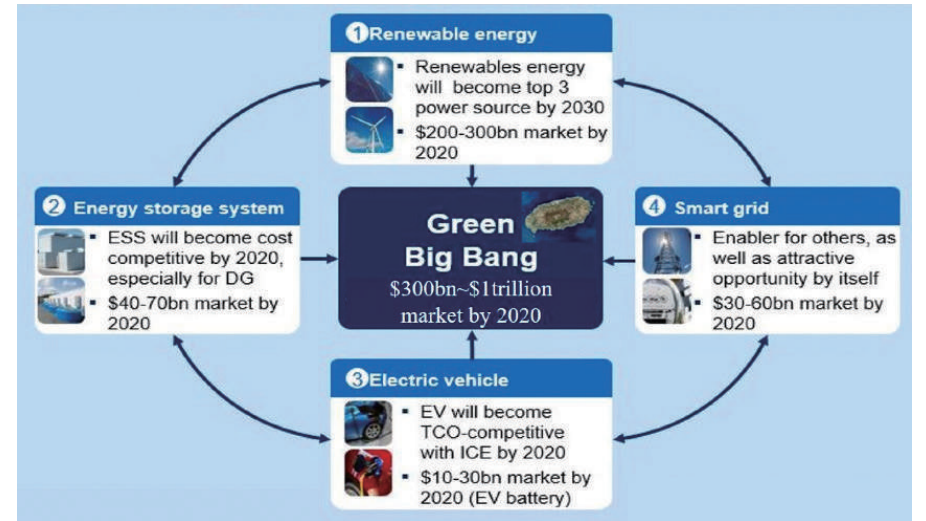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몽골의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중-일 동북아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제안했다.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이 제안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4년 UN 지속가능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전력망을 청정-녹색에너지로 연결하자는 5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연결(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구상을 발표하며 힘을 얻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6년 동방경제포럼에서 ‘아시아 에너지 링(Asia Energy Ring)’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패널을 제의하면서 탄력이 더 커졌다.<그림 2>

이에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신설, 임기 내 착공을 다짐하면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현실의 문턱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중국 전력망 공사-일본 소프트뱅크-러시아 로세티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MOU를 맺은 상태로 정부 간 협정이 이뤄지면 초고압 직류전송(HVDC)을 비롯한 전력과 통신, 차세대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미래 에너지 기술이 총집결될 터인데 스



<그림 2> 아시아 슈퍼그리드



<그림 1> Green Big Bang : \$1 Trillion opportunity by 2020
Four pillars for Green Big Bang: Their interoperability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 fundamentally

웨덴의 ABB,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통, 미국의 GE, 중국의 세프리(CEPRI)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맹추격이 기대된다. 이 같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궁극적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한 데이터 테크놀로지다. 손정의 회장 직계인 미와 시게키 소프트뱅크 에너지 사장은 이번 4회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슈퍼그리드를 통해 사물인터넷(IoT)에 이어 사물 전력망 시대(GoT: Grid of Things)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소프트뱅크가 모바일 프로세싱 기업 ARM을 인수한 데 이어 차량 공유 기업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은 빅 데이터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라 털어놓았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구글, 애플, 테슬라 등이 뛰어들 배경도 유사한데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떠오른 알리바바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얼마 전 지속 발전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일으킨 인류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할 전쟁

일 것”이라며 ‘빅 데이터’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데이터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인류가 처음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에너지와 자원’이라는 것이다.

미래는 뉴 프론티어를 선점하는 자들의 몫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 변화는 1, 2, 3, 4의 산술적 패턴이 아니라 1, 2, 4, 8의 기하급수적 패턴을 따르는 데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기성세대가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보고,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다.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SF 작가 윌리엄 김슨의 말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와있지만 그 미래는 앞을 보고 뉴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이들이 ‘편파 애정’할 공간이 크다. KAIST인들의 진취적 기상과 공동체 정신이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



김상협 교수

HBR BEST ARTICLE REVIEW

정리. 박지용 박사과정(경영공학 15학번)

By Ron Kohavi(Microsoft) and Stefan Thomke(Harvard Business School)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2017]



온라인 실험의 놀라운 힘

바야흐로 온라인 실험의 시대이다. 웹사이트는 대규모 실험의 장이 되고 있고, Amazon.com, Booking.com 등 우리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일주일에 수백 건 이상의 온라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Microsoft의 검색엔진인 Bing에서는 2010년에는 거의 없던 온라인 실험 시행 건수가 2014년에 일주일에 300여 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그림 1> 이러한 실험을 통해 Bing에서는 매달 수십 건의 기능 개선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매년 10~25%의 매출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 웹은 IT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이며 온라인 실험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Microsoft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실험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에서의 온라인 실험은 주로 A/B 테스트를 통해 실행된다. A 그룹은 통제 그룹으로서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며, B 그룹은 조작 그룹으로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특정 기능을 적용한다. 온라인 이용자들은 무작위로 A와 B그룹 중 하나에 배정되며,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기능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A/B 테스트로 인터페이스의 변화(예: 새로운 레이아웃), 내부

알고리즘 변화(예: 추천 시스템 개선), 다른 비즈니스 모델 (예: 무료배송 제공) 등 다양한 요소들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규모 투자에도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때로

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Microsoft는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Bing 검색 페이지에서 Facebook과 Twitter 콘텐츠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을 개발하였지만, 그로 인한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반면, 온라인 실험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기능 개선 사례

2008년에 Microsoft의 한 직원은 MSN 홈페이지에서 Hotmail 링크를 클릭할 때 현재 탭이 아닌 새로운 탭에서 열리는 기능을 제안했다. Microsoft는 해당 기능에 대해 2008년에 영국에서 90만 명을 대상으로, 2010년에는 미국에서 1,200만 명을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이 단순한 기능의 변경만으로 이용자당 클릭 횟수가 5~9%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능은 이후에 Microsoft뿐 아니라 Facebook 등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도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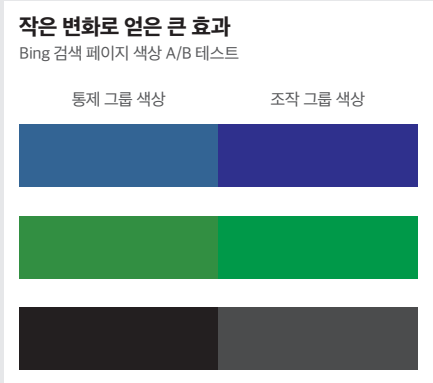
투자 최적화 사례

온라인 테스트는 투자 최적화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Microsoft는 A/B 테스트를 활용해 Bing에서 이용자들이 페이지 로딩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검증했고, 0.1초의 로딩 시간 차이가 Bing 매출에 0.6%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것은 0.1초의 로딩 시간은 약 1,8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바탕으로 로딩 시간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인터페이스 개선 사례

Microsoft는 Bing 검색 페이지 내 제목, 링크, 캡션 등의 색상을 바꿔가며 다양한 A/B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비록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예상외로 매우 컸다. 실험 결과, 페이지 제목은 약간 더 어두운 파란색과 녹색, 그리고 캡션은 살짝 더 밝은 검은색으로 바꿨을 때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자 Microsoft는 3,200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실험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검증했고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매년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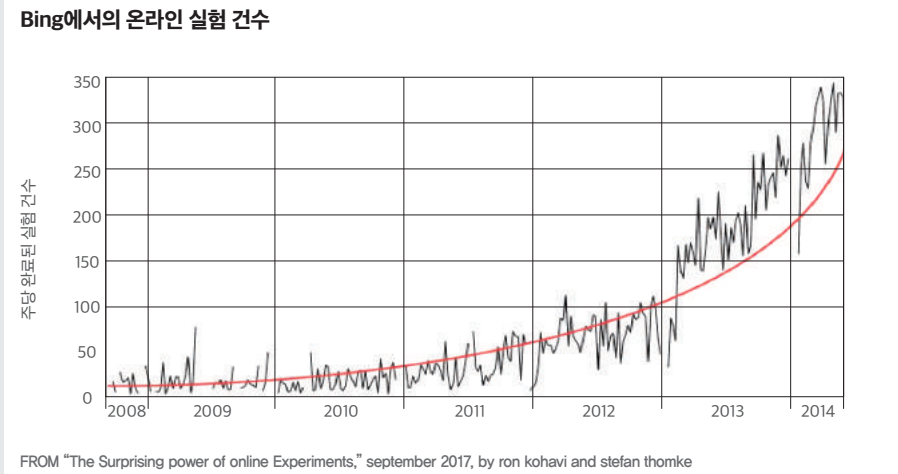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A/B 테스트의 핵심은 통제 그룹의 존재 유무인데, 통제 그룹 없이 조작 그룹만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Microsoft Office에서는 여러 메시지를 많이 받은 이용자일수록 사용량이 많다. 그렇다면 Office 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여러 메시지와 사용량간 양의 상관관계는 그들이 해비 유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그릇된 경영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한 그룹에는 여러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여러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후에, 두 그룹간의 사용량 차이를 분석하는 A/B 테스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온라인 실험의 놀라운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실험은 사실상 대부분 큰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약 10~20%의 실험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매출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실험을 전담하는 인력의 확충도 중요하다. Microsoft의 분석 및 실험 팀은 8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Bing, Cortana, MSN, Skype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실험의 평가 지표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전략에 부합하는 장/단기 평가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온라인 실험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직관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로 바꿔놓고 있다. 온라인 실험이야말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림 1>



FROM "The Surprising power of online Experiments," september 2017, by ron kohavi and stefan thomke

SMR BEST ARTICLE REVIEW

정리. 최승우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번)

By Sam Ransbotham, David Kiron, Philipp Gerbert and Martin Reeve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2017]

Reshaping Busines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한 사업 개조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기업들의 현황은 어떨까? 이 리포트의 목표는 현재 기업에서 어떤 수준의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상적인 수준과 현재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3,000명 이상의 경영진, 관리자 및 분석가의 설문 조사와 30명 이상의 기술 전문가, 경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채택과 이해의 격차

조사 결과, AI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에 적용하는 수준은 대부분 초기 단계로, AI에 대한 기대치와 실행의 격차는 사실상 컸다. 4명 중 3명의 경영자는 AI가 그들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고, 85%는 AI가 경쟁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다섯 기업 중 한 기업만이 AI를 몇 제품/서비스와 프로세스에 구현시켰고, 20개 기업 중 오직 한 기업만이 기업에 대대적으로 적용하였다.<그림 1>

AI 채택 정도

채택의 차이는 현저하게 컸고, 특히 같은 산업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데이터 과학자가 110여 명이 있는 기업 Ping An을 예로 들면, 약 30명의 CEO의 지지로 AI 전략들을 실행했고, 최고 혁신 책임자인 Jonathan Larsen은 “이 AI 기술은 앞으로 회사의 매출 증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보험업계 다

른 대기업인 Western insurer에 따르면 “(우리 회사의) AI 전략은 Chatbot을 실행하는 정도에 지나쳤다”라고 말했다.

AI 이해 수준

AI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조직에 따라 달랐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속 조

직이 잘 이해한다는 질문에 16%의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17%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 훈련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조직의 이해 수준 질문에 19%의 응답자는 ‘매우 높다’라고 응답했으나 16%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AI의 채택 정도와 이해 수준에 대한 설문의 응답 데이터를 조합하여 개척자, 수사관, 실험자 및 수동자라는 네 가지의 군집을 도출했다.

- 개척자(19%)** AI를 잘 이해하고 채택한 조직 AI를 조직의 제품/서비스 및 내부 프로세스에 채택한 그룹.
- 수사관(32%)** AI를 이해하지만 채택 수준은 파일럿 시행에 머무는 그룹. AI로 인한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철저히 조사한 후 채택을 결정하는 그룹.
- 실험자(13%)** 깊은 이해 없이 AI를 채택하거나 이제 파일럿을 시행하여 배우기 시작하는 그룹.
- 수동자(36%)** AI를 채택하지 않았고 AI 관련 지식도 거의 없는 조직들

그렇다면 기업들이 AI 채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새로운 기술과 기존 데이터를 대규모로 통합한 경험이 많은 산업들조차도 AI 채택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AI 채택 정도 차이의 원인은 사실 기술적 문제보다는 사업적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기술적 역량보다는 투자 우선순위 문제, 불명확한 기업 효용을 AI 채택의 장애물로 여겼다.

채택의 장애물

개척자 군집 회사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AI 전문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것과 AI 투자의 경쟁우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고위경영자들은 AI 전략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영 사례를 개발하였다. 반대로 수동자 군집은 AI가 그들 조직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기준에 맞는 탄탄한 경영 사례도 개발하지 못했다. 리더십은 그다음 문제였고, AI 전문가

를 찾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마저도 인지하지 못했다.

데이터, 훈련 및 알고리즘의 필요성

네 가지 군집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었다. 수동자에 비해 개척자는 알고리즘 훈련 프로세스를 12배 더 잘 이해하며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비용을 이해하는 데 10배, AI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8배 이상 더 이해할 수 있다.<그림 2> 많은 개척자는 이미 AI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탄탄한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사관과 실험자는 분석 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으며,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데이터 통합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 훈련에 대한 투자에서도 역시나 차이가 크다. 개척자는 절반 이상이 데이터 및 알고리즘 훈련에 상당하게 투자하는 반면, 다른 군집은 훨씬 적은 투자를 한다. 실험자의 1/4만이 AI 알고리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와 AI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AI 데이터에 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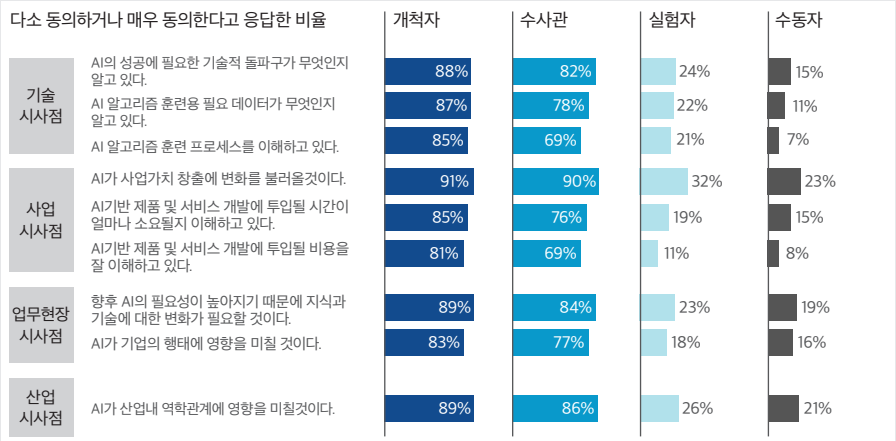
AI를 활용하는 데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만으로도 의미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아무

리 정교하다고 해도 부족한 데이터의 양은 극복할 수 없다. 데이터 부족 현상은 심지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데이터 결과만으로는 데이터 부족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itrine Informatics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 개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개된 실험(성공적인 실험에 편향된 데이터)과 미공개된 실험(실패한 실험 포함)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다. 부정적인 데이터는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itrine Informatics는 R&D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수집 및 준비에는 많은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기업이 데이터 수집 및 준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점점 그 유지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척자 군집은 이러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AI를 통해 현재 프로세스와 제품 성능의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지만 단순한 개선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율을 찾을 때는 단지 기준선만 이동할 뿐이기 때문이다. AI가 기업 미래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요점들을 파악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의 강점을 협력해갈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AI 이해 수준
당신의 조직에 대한 다음 질문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FORTUNE WORLD NEWS UPDATE

By ROBERT HACKETT 2017.09.15

Dead, But Not Forgotten

전자제품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폐기물 처리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UN 산하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은 다른 어떤 유형의 폐기물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그 규모가 올해 4,82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처리다. 전자폐기물의 대부분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인 Basel Action Network(BA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작년 수백개의 가전 제품에 GPS를 부착해 재활용 업체에 반납한 뒤 추적한 결과 40%가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홍콩으로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컨테이너에 전자폐기물을 가득 싣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이 합법입니다”라고 watchdog group의 Director인 Jim Puckett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유해 폐기물을 개발 도상국에게 버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바젤 조약을 완벽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ERI는 세계 최대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서 버려진 전자기기를 재활용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납, 구리 등의 원자재를 생산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자재 시장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안전한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로 재포지셔닝하고 있다. ERI의 CEO Shegerian은 개인의 정보와 회사 기밀을 포함한 장비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면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국 방위 산업 컴퓨터 부품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SMT Corp. Tom Sharpe 부사장에 의하면 “중국에 버려진 전자폐기물에서 소생된 위조 칩이 공급망에 다시 들어가고 있다. 전자폐기물을 막무가내로 처분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부메랑 효과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전자폐기물은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 이슈가 되고 있다.



By TIMOTHY GARDNER 2017.11.13

The Future of Coal Remains Bleak One Year After Trump's Election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석탄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해당 분야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올해 미국 석탄업계의 고용 및 생산율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보다는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 공급업체의 임시 정전 때문에 아시아 지역 철강 공장들의 미국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석탄업계는 최근 10년 동안 노동력이 40% 이상 감소했고 생산량은 1978년 이후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 1/20이었던 전력시장 점유율은 1/3로 떨어졌다. 이에 전력업체들은 미국 석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른 속도로 폐쇄하고 값싼 천연가스나 풍력 및 태양력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American Electric Power(AEP)의 Melissa McHenry는 향후에는 석탄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없다며 “석탄의 미래는 경제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AEP의 석탄화력발전은 전체 발전의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이를 33%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요 산업과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대통령 공약의 한계를 보여준다. 국립광산협회의 Luke Popovich 대변인은 트럼프는 광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발전소의 탄소 배출 감축, 석탄산업의 연방국토 임대 중지, 석탄 폐기물 투기 제한 등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발전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부터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오직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ortune Asia Pacific Edition, Fortune.com 정리. 신주현, 진소정 기자

By GEOFFREY SMITH 2017.11.15

If You Think Electric Cars Will Save the Planet, Think Again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연간리포트를 통해 전기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10억 대의 차량 중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는 2백만 대로, IEA는 이 숫자가 2025년에는 5천만 대, 2040년에는 2억 8천만 대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언뜻 보기에 이 수치는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전체 차량 수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억 대로 증가될 것이라는 데 맹점이 있다. 전기차 운행으로는 2040년에 예상되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중 불과 1%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있지 않는 한, 해상 및 항공 운송으로 인한 배기가스의 증가가 차량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운송 분야에서는 서서히 연료를 석유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대체제로 옮겨가고 있지만 상업용 항공 운송에 사용되는 석유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기차는 전체 전력수요 증가 원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산업화로 인한 개도국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산업에서 사무실,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부터 인터넷 공유기, 드론 등 생활에 필요한 전력수요는 2040년이 되면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는 가장 큰 이유다. IEA는 204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석탄 소비량을 30억 톤 줄이고, 저탄소에너지 평균 소비량을 60억 석유환산톤만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By KESHIA HANNAM 2017.12.14

New Study Shows Sea Levels Could Rise Twice as Much as Originally Predicted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기존의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arth’s Futur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빙붕(Ice Shelves)의 분열과 광범위한 빙벽(Ice Cliff)의 붕괴가 전세계적으로 200피트(약60m)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도시별 해수면 상승이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예측이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하에서 2100년까지 해수면이 평균 2피트 5인치(약74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Earth’s Future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의 높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21세기 안에 해수면이 4피트 9인치(약145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National Geographic에 의하면 동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두께 12,000피트(약 3.6km) 이상의 얼음은 서남극 빙상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덜 취약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Univ. of Texas at Austin과 Univ. of South Florida 연구팀은 Nature지를 통해 동남극 지역의 이 두꺼운 빙상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Earth’s Future의 연구는 2050년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명시된 기온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한다면 남극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반면 이러한 대응조치가 없다면 현재 1억 5천 3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길 지도 모른다.

녹색경영과 SF: <워터월드>에서 <다운사이징>까지

글. 류성한 동문(경영공학 박사 10학번)

과학소설 (Science Fiction, 이하 SF) 작가이자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엘리엇 페퍼(Eliot Peper)는 2017년 7월 Harvard Business Review에 기고한 "Why Business Leaders Need to Read More Science Fiction"을 통해 SF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제공하는 유익함을 역설했다.

녹색경영은 왜 SF에 주목해야 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SF를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로 취급하지만, SF의 진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동시에 그 미래 상황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SF는 미래 예측이라는 측면 외에도 여러 가정에 대해 의심을 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기반 기업들이 SF 작가들을 컨설턴트로 고용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는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경영은 SF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녹색경영의 목표가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SF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이상향으로서 (또는 반면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¹ 특별히, 녹색경영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SF 콘텐츠의 단골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 개봉한 <워터월드>는 기후변화를 소재로 삼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초로 볼 수 있다.²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빙하가 다 녹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사람들이 배로 지어진 수상 도시에서 생활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드라이 랜드(Dry Land)라 불리는 땅과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 문신을 한 아이를 둘러싼 모험이 주된 스토리로 과학적 요소들이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등 중요한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004년 개봉한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블록버스터 영화로 평가받는다. 비현실적인 설정³으로 과학자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기는 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이것이 해류의 흐름을 바꿔 기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자체는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개봉 당시 열 앵거 전 부통령의 <불편한 진

실>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는데, 당시 조지 W. 부시 정권이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⁴ 등 각종 환경규제 협약을 무시하던 상황에서 영화의 스토리가 미국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이슈가 되기도 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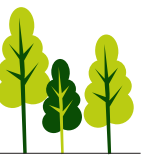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201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는 <투모로우>와 유사한 설정을 독특한 스토리로 풀어냈다. 영화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화학물질을 전 세계에 발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결국 또 다른 기상 이변인 빙하기를 초래한다. 17년간 지속된 빙하기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은 멸종되고 인류의 마지막 생존 지역이자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는 설국열차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투모로우>나 <설국열차>와는 반대로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진 미래를 그린 작품도 있다. 2014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영화에서 묘사한 지구의 모습을 살펴보면 황사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지면서 옥수수만 심게 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⁶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인류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 쿠퍼 역을 맡은 매튜 맥커너히가 인류의 새로운 터전이 될 장소를 찾아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한다. 최근 개봉한 <다운사이징>은 자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할 미래 사회를 위해 획기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 영화에는 인구 과잉,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간을 수십 배 작게 축소시키는 기술⁷이 등장하는데 거창한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빛에 시달리는 중산층들이 한정된 소득과 자산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상용화된다. 환경 운동가로도 활동하는 맷 데이먼이 다운사이징 기술을 선택하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으로 분했으며 주인공이 축소된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SF는 어떻게 녹색경영, 더 나아가 지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SF는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상

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최근의 콘텐츠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법한 상황을 소재로 삼아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극적 효과를 살리고 환경문제 해결에 소홀한 현재 상황을 풍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상 고온, 홍수, 폭설 등 기상 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SF 콘텐츠들의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구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녹색경영의 미래지향적 기치(旗幟)를 생각한다면 녹색경영은 앞으로 SF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열정은 현재 우리를 제약하는 여러 한계 조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길로 안내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과 조직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가 지닌 위대함이기 때문이다.



1 SF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미래의 재앙과 재난을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에는 그 근원지가 주로 외계인 침략 등의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세계대전 이후로는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난을 배경으로 하는 SF 콘텐츠가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12 몽키즈>, <나는 전설이다>와 같은 영화는 생물체 조작이 야기한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2 총제작비 1억 7,200만 달러로 개봉 당시(1995년) 기준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기준으로도 역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촬영 도중 태풍을 만나 기존 세트(둘레 500m의 수상 도시)가 가라앉는 바람에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3 새로운 빙하기는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지만 <투모로우>에서와 같은 급진적인 기상 변화는 과학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1997년에 채택, 2005년에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 영화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닮은 것은 물론 영화 초반부에 일어 죽는다는 설정 등을 감독의 의도로 해석한 결과이다.

6 기후변화의 결과로 잦은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지구의 사막화로 심해지고 있다. 농작물들이 바뀐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식의 수확량 또한 감소할 수 있다.

7 영화 속 설정에 따르면 이 기술은 인간의 부피를 0.0364%로 축소시키고 무게도 2744분의 1로 줄일 뿐 아니라 1억 원의 재산을 120억 원 가치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IT와 함께 우리 삶으로 성큼 다가온 녹색 바람

글. 유은 기자



기후 변화와 탈석유 시대를 앞두고 녹색 바람이 불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삶에 녹아든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미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자율주행차 + 공유 자동차

전기자동차란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화석연료 공급량의 감소에 대응하고 기존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적다는 점에서 오래 주목을 받아 왔다. 전기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를 비롯하여 상용화가 활발해졌는데, 최근에는 환경 인식과 경로 제어, 실시간 교통정보 처리를 비롯한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결합하여 녹색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이 두 가지가 결합한다면, 배기가스 문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짧은 차량 수명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버(Uber)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점진적인 활성화는 소비자 자동차를 소유의 대상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서비스로 여겨, 점차 교통량이 감소하고 도로 혼잡 문제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공유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가 곧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는 빅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에는 지역, 시간대별 차량 수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IT 기업을 비롯해 BMW, GM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공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유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차량 공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차,
공유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가
곧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
말한다.



1 쏘카(SOCAR)에 따르면, 차량공유 서비스는 차량 소유 대비 연 309만원 비용 절감 효과(경제적 가치), 공유 차량 1대 당 도로 위 12.5대 감소 효과(환경적 가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혼잡 문제 개선 효과(사회적 가치) 등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2 스마트 그리드(Smart-Grid) 지능형 전력망.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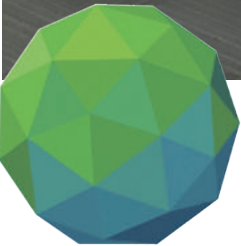
참고문헌
로버트 J. 고든 (2017).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생각의힘
오성호 외. (2017).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 인프라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토니 세바. (2015). 에너지 혁명 2030. 교보문고

스마트 미터 (Smart meter)

기본 미터기는 각 기기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그쳤으나, 스마트 미터를 사용하면 원격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간격으로 전력 사용 정보를 송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미터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고지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크 시간대에 전력 낭비를 예방하거나, 누진세 구간을 피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미터를 기반으로, 전자제품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작동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홈 네트워크 시스템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스마트 미터 관련 기업은 삼성전자, 코맥스를 비롯한 가전제품 제조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 출연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스마트 미터는 아직은 도입 단계로 전력을 소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나, 미국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가구들이 남은 전력을 스마트 그리드²와 블록체인(Blockchai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에너지 거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정보기술은 미래자동차, 스마트 미터, 스마트 홈 시장에서의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전 세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Sustainable Future)로 나아가기 위해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또한 정보기술이 3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 성장을 이끌지는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들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발판으로 불어오는 녹색 바람을 맞아, 우리의 삶에 찾아올 변화를 기대해 보자.



GREEN
CLIMATE
FUND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뉴 프론티어

녹색기후기금(GCF) 인턴기

글. 정혜림 기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뉴 프론티어'의 정신은 내가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서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DNA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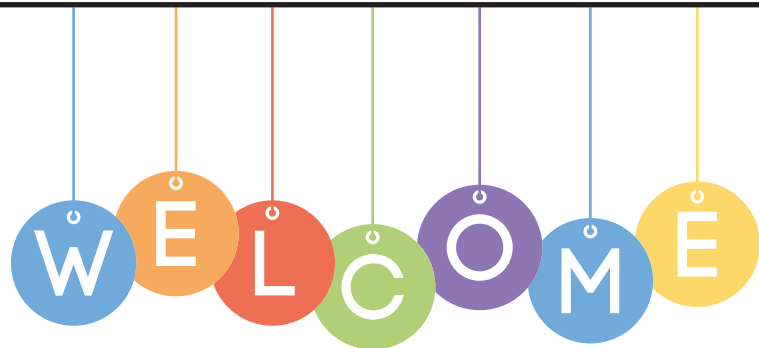
녹색기후기금(GCF)과의 인연

지난 2년간,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서 녹색경
영정책을 공부한 후 작년 12월부터 녹색기후기
금(GCF, Green Climate Fund)의 PMU(Portfolio
Management Unit)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GCF는 2012년 대한민국이 독일, 스위스와의 경
합 끝에 본부를 유치한 UN 산하 국제기구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
할 예정이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으
로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미 2013년부
터 인천 송도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PMU는 모든
GCF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부서로 나는 여기에서 GCF가 진행 중인 사업 내용
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예전부
터 전공 분야인 녹색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
었기에 GCF에서 인턴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국제
사회의 녹색 사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야
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GCF 인턴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비전공자에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개
념을 잘 알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AIST 경영대학 재학 중
김상협 교수님의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강의를 들
고, 교내 네트워크를 통해 월드뱅크의 Korea Green
Innovation Day와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봉사 활동을 했기에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에 익숙했다. 또한, 엄지용 지도교수님
의 연구실에서 에너지 원단위 추세 분석 연구를 진
행하며 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던 경험을 긍정적으
로 평가받았던 것 같다.

가져 않은 길에 대한 도전!

GCF는 출범한 지 5년이 안 된 신생 기구인데 그중
에서도 PMU가 가장 최근 신설된 부서로 늘 다양한
이슈와 부딪히며 새로운 일을 해야 해서 매우 역동
적이다. 특히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GCF 프로젝트들
의 진행 정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수혜에 대한 자료를 매일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성취감이 크다.
나는 GCF뿐만 아니라 녹색산업과 에너지 분야
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GCF에서의 경험
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초청을
받고 현지에서 6개월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
접 참여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들이 가보
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뉴 프론티어'의 정신은 내가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서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DNA라 생각한다.



KAIST 경영대학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2017년 가을, KAIST 경영대학은 세 명의 젊은 학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았다. IT Management 분야 권주희 교수, Finance 분야 김동규 교수, Accounting 분야의 이광준 교수를 만나보자.

권주희 교수

IT Management 분야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하기 전 어떤 길을 걸어 오셨나요?

학부는 미생물학을 전공했지만, IT에 관심이 있어 LG CNS에 입사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IT 시스템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공부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회사 보안 정책과 투자 그리고 그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후에는 홍콩시립대학에 재직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시스템 도입 후의 성과 등을 연구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한 과목은 정보미디어MBA 과정의 '데이터 마이닝과 지능형 마케팅' 과목인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방법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다른 과목은 정보경영석사 과정의 'IT 기반 비즈니스 혁신'으로 IT로 인한 산업 변화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실제 경영 현장의 문제를 팀 토론을 통해 고민해보는 수업입니다.

앞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연구할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회사, 병원 등 조직의 보안 정책과 결과에 초점 맞췄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조직에 미친 성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 향상된 서비스 경험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산업에서 스마트폰 앱은 환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자 서비스 채널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새로운 채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만족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일이 병원의 평판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연구하기 가장 좋은 학교가 KAIST라고 생각합니다. IT Management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동료 교수님들과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연구의 폭을 넓히고, 지금까지 쌓아온 KAIST 경영대학의 명성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와 더불어, 빠른 산업의 변화가 지닌 함의를 파악해내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하기 전 어떤 길을 걸어 오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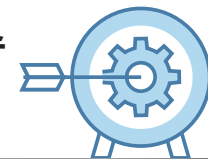
학부에서 경영, 경제, 통계를 공부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통계학을 기반으로 이해를 넓히고 싶어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미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연구환경, 그리고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들을 보고 KAIST 경영대학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2017년 가을학기에는 금융공학 석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통계 분석', '금융계량 분석', '빅데이터와 금융자료 분석'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빅데이터와 금융자료 분석' 과목은 High-Dimensional Financial Data의 모델링 및 분석 방법론을 강의했는데요. 금융에널리틱스 심화과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광준 교수

Accounting 분야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와 앞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연구할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주식 등 금융 거래 데이터(Tick-by-Tick)를 바탕으로 금융 시장에서의 자원 분배와 효율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비싸서 발생하는 시장 비효율성이 큰데, 최근에는 이 문제를 금융 빅데이터에 머신 러닝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극복하려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실제 거래에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중입니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등 시장 구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모델링 연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에서, 모든 혁신의 기반은 통계학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학 수요는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통계 지식을 갖추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하기 전 어떤 길을 걸어 오셨나요?

2010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회계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3년까지 University of Pittsburgh에 조교수로 있다가 2017년 초까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해 KAIST가 친숙하기도 했지만, 다른 학교보다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젊은 연구자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해 KAIST 경영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2017년 가을학기에는 경영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계학 고급연구'를 강의했습니다. 수업 전반부에서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실제 회사 상황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후반부에서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올해 봄학기에는 프로페셔널MBA 과정의 '재무제표분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교수

Finance 분야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와 앞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연구할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재무회계, 기업지배구조, 금융 규제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금융 규제 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실무자들이 사업 보고서를 심사할 때, 심사자 개인의 성향이 심사 후 피드백의 수, 항목, 해결에 필요한 시간 등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실무자단보다 의회에서 임명하는 의사결정자단(Commissioner)에서의 결정이 개인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KAIST 경영대학은 지금까지 훌륭한 연구 성과를 쌓아 오신 교수님들이 있는 곳이므로 제가 성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학술적인 성취를 보여드리고, 동시에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회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 개최

우수한 경영 사례 발굴하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기회 가져

KAIST 경영대학 경영사례 연구센터에서는 우수한 경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Case Competition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한 기업을 선정해 경영 혁신, 기술 혁신, 녹색 기술의 사업화 사례,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티칭 노트를 작성한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제4회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의 최종 발표 및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Case Competition에서는 MBA, 경영공학부, 기술경영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64명이 참가해 20개 팀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최종 발표팀은 제안서, 진행 보고서, 사례 제출까지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아놀자, 쉐트렉아이, ㈜온누리,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드라마앤컴퍼니, 미미박스, 네이버, ㈜마인즈랩 기업을 분석한 총 8개의 팀이 배종태 경영사례 연구센터장, 김영배 KAIST 경영대학장을 포함한 총 다섯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경합을 벌였다.

CEO 관점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다

대상은 ‘미미박스’의 노현영, 박정호, 정고운, 송지혜(PMBA 17학번) 팀이 수상했다. 송지혜 학생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깨달은 바가 많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은 ‘㈜마인즈랩’의 송형근(경영공학 17학번), 이경민, 정슬기(IMMBA 17학번) 팀이 수상했다. 정슬기 학생은 “반 년 동안 함께 고생한 팀원에게 고맙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려상은 총 세 팀으로, ‘드라마앤컴퍼니’의 박상준, 송재오(IMMBA 17학번), 주재현(경영공학 13학번), 최평국(PMBA 17학번) 팀, ‘쉐트렉아이’의 이기준, 최호장(기술경영 16학번), 이주연(녹색경영 16학번) 팀, 그리고 ‘아놀자’의 곽운주, 김영진, 박원, 이보례(PMBA 17학번) 팀이 수상했다. 챌린지상에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의 김연수, 이상균(FMBA 16학번), 정애경 팀, ‘㈜온누리’의 Dana Mustafina, Nomin Batnyam, 신주현(녹색경영 17학번)팀, ‘네

이버’의 이원준, 이호주, 박훈(TMBA 17학번) 팀이 선정되었다. 대상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해외 Case Competition 참가비가 지원되고, 우수상 팀에는 상금 200만원, 장려상에는 100만원, 그리고 챌린지상에는 30만원이 수여되었다.

배종태 경영사례 연구센터장은 시상식에서 “수업에서 가르칠만한 훌륭한 케이스였다”라며 평을 전했다. 심사위원이었던 정구현 교수는 참가자들에

게 “Case를 출판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상 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Case Competition은 학생들에게 기업 CEO 관점에서 당면한 의사 결정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앞으로 Case Competition으로 개발된 사례들을 국내외 여러 경영대학이 활용할 날을 기대해 본다.



당신의 셈바 킹에게 투자하세요

사회적기업가MBA 4기 졸업 기념사업 발표회

지난 12월 8일(금) KAIST 경영대학 수펙스 경영관 5층 최종현 홀에서 KAIST 사회적기업가MBA(SE MBA) 4기 졸업 기념사업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열린 사업 발표회는 셈바 킹(SE MBA King) 선발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SE MBA 4기인 16개의 사회적기업이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KAIST 경영대학 교수진, SK 행복나눔재단 임직원, 내외부 참석자들의 코인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코인을 얻은 기업이 셈바 킹이 되는 방식이다. SE MBA 4기 학생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사업 현황,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소개했고 청중은 입장할 때 받은 코인을 가장 일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의 투표함에 넣었다.

2017 졸업 기념 사업 발표회의 주인공들

1부 행사에서는 ‘Beyond Korea’라는 주제로 ‘Wheelephant’의 아프리카 가나 자전거 대여 사업, ‘KOREAN BROS’의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 사업, ‘JERRYBAG’의 아프리카 수질 환경 개선 연계 디자인 상품 사업, ‘아리랑 스쿨’의 전통문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사업, ‘pablac’의 모링가를 활용한 저가 발국 아동 영양실조 문제 해결 사업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Empowering People’이라는 주제로 ‘맛있저염’의 콩팔병 환자 건강 상태별 맞춤형 식단 배송 서비스 사업, ‘Care U’의 노인성 질환 예방 디지털 콘텐츠 사업 그리고 ‘CTOC’의 맞춤형 무술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Solution 제공 사업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2부 행사에서는 ‘Connecting People’이라는 주제로 ‘로완’의 1인 소용 지원 법률 지식 공유 플랫폼, ‘모두의 기숙사’의 지역 주택 활용 기숙사형 자취방 제공 플랫폼, ‘만인의 꿈’의 창작 인큐베이팅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빈곤/일자리 부족 해결 사업, ‘모두의 캠퍼스’의 대학생 학습교재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소개하고, 이어 ‘Compassion & Empathy’라는 주제로 ‘수다의 꽃 기반 심리 정화



콘텐츠 사업, ‘모두다’의 장애인 여가 활동 개선 사업, ‘아름다운 사람들’의 장애인 고용 출판물 디자인 및 인쇄 사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주거 취약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사업의 발표가 있었다. 신창식 대표(아름다운 사람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출판 품질로 최고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황서연 이사(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는 거주할 곳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민달팽이와 같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0여 명의 참석자가 투표한 결과 2017 셈바 킹의 영광은 ‘CTOC’의 장은하 대표에게 돌아갔다. CTOC

는 Challenge to change(변화를 위한 도전)란 의미로 정신의학, 심리상담, 운동(무술) 전문가들의 협진을 통해 맞춤형 치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형 멘탈 헬스케어 기업이다. 장은하 대표는 “OECD 국가 중 한국은 정신질환 코드(F코드)를 갖고 있을 경우, 120여 개 직업군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법이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참석하신 분들이 정신 건강 이슈에 대해서 크게 공감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단순히 특정 문제의 치료를 넘어 정신 문제에 관한 편견과 차별 해소에 앞장서, 한국의 정신건강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김병기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번)

지도교수: 류충렬, 임용 대학: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매년 KAIST 경영대학 출신 박사들이 해외 우수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전해온다. KAIST 경영대학이 배출한 또 한 명의 젊은 교수, 김병기 동문을 만나보았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임용 소감 부탁드립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2011년 경영공학 회계 트랙 석사과정으로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3년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올해 2월에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호주 The University of Queensland에 회계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6월 부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도 되지만 임용되어 정말 기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지배 구조와 회계적 보수주의에 관해 연구 중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신용평가 정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이슈를 발견하면 주제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영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박사과정 중 University of Hawaii에 반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독해나 작문은 대부분 학생이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발표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나 교내 세미나에서 영어로 발표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말하기 기술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대학에 보이는 관심과 한국 출신 박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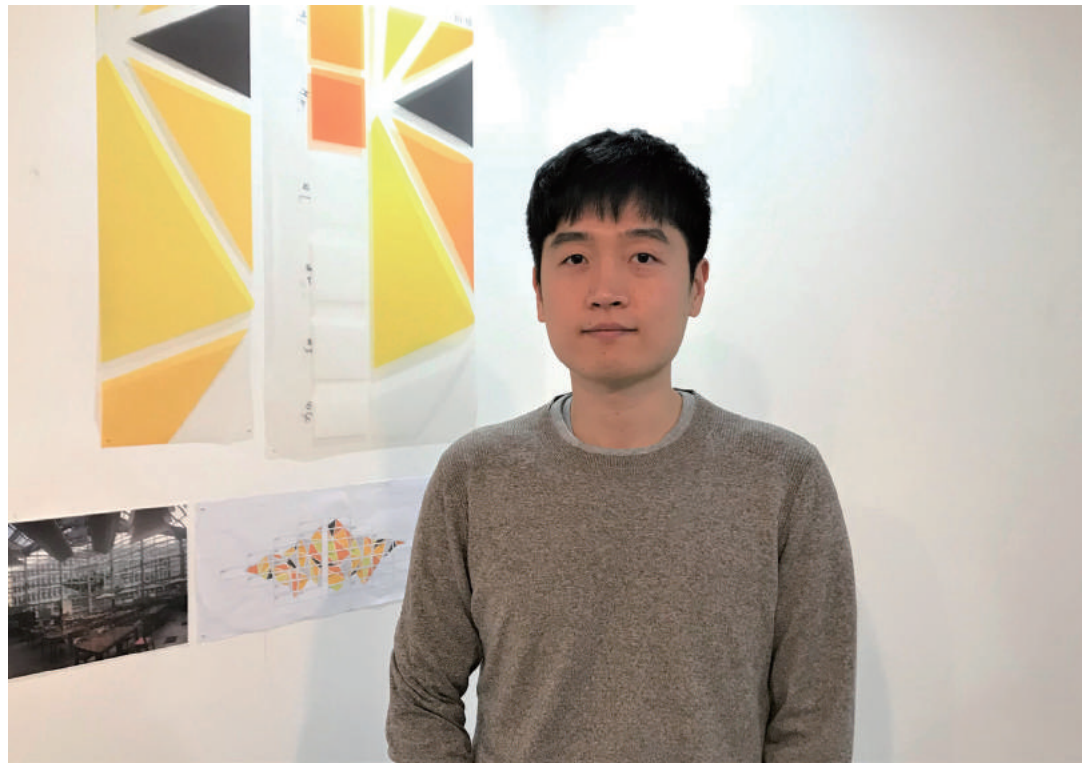
해외에서는 한국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연구 성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논문의 질과 그 논문을 인용한 발표를 많이 봅니다. 하

지만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불리하거나 해외대학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 4년간 KAIST 경영대학의 선배들이 해외 우수 대학에 많이 임용되었는데 저 또한 그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후배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해외대학 취업 노하우가 있다면?

해외대학을 못 넘을 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시도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해외에 체류해 본 적이 없었지만 6개월이나 방문연구원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 능력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제가 해외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호주 학교는 호주 내에서만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임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학교의 인재상과 상황에 맞지 않았을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원하는 인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동문들의 열정으로 부활한 ‘2017 KAIST RUN’

‘카이스트 런’이 부활했다. ‘뛰어서 남주는 달리기’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2013년에 처음 시작한 ‘카이스트 런’은, 마라톤 참가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2014년 이후 잠시 중단되었지만 동문들의 의기투합 덕분에 3년 만에 화려하게 재개되었다.

참가자 전원, 10km 완주의 기쁨을 함께 누리다.

2017년 11월 5일, 중앙마라톤 대회 현장에 KAIST 경영대학 재학생, 동문 등 30여 명의 ‘기부 러너’들이 모였다. 오전 8시.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함께 몸을 풀고 마라톤 10km 코스를 준비했다. 한미숙 동문(SE MBA 13), 차승현 동문(TMBA 13학번, 13대 학생회장)을 필두로한 ‘카이스트 런 부활단’에서 에너지바와 간식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은 더욱 힘을 얻었고, 기부 러너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렸다. 10km 코스는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출발해 잠실대

교 복단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결승점을 통과해 완주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또한 비록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총 32명이 사전 기부를 통해 뜻을 함께 모았고, 총 15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놀이형 스포츠 교육 지원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운동 교육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2018년 1월 10일, 서울시 성동구 ‘꿈터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25명이 첫 수업을 받았고, 킥볼, 넷볼 등의 다양한 놀이형 스포츠를 즐기며 ‘카이스트 런’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운동



교육 후원은 KAIST 경영대학 정치혜 동문(SE MBA 13학번)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HIVE’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교육은 1월 초에서 3월까지 총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카이스트 런’ 만들기

카이스트 런은 2013, 2014년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행사였다. 이번 2017년 ‘카이스트 런’을 부활시킨 주체도 그들이었다. 한미숙 동문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고 보람되어 카이스트 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며 행사를 주최한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카이스트 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고민도 엿보였다. 이번 2017년 행사는 참석자 20명, 기부금 100만원의 작은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부 러너로 참여한 이지이 학생(경영공학 15학번)은 “좋은 취지로 달리기까지 하니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라며 매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동문의 열정과, 매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결합된다면, ‘카이스트 런’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017 KAISTVAL, 웃음 가득한 흥릉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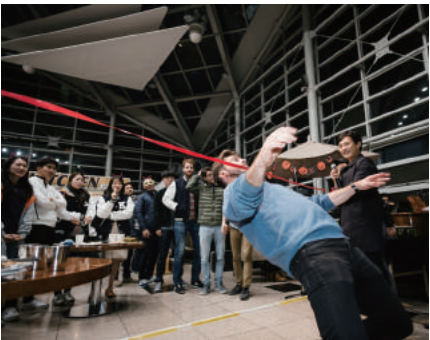
2017년 11월 3일,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흥릉에 축제의 밤이 찾아왔다. 학업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캠퍼스는 이날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했다.

Diversity의 현장, KAISTVAL

제 17대 총학생회의 리더십 하에 진행한 2017년 KCB 가을 축제는 'Diversity'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다. 마치 해외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내국인 재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학생까지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축제는 참가자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농구 대회, 탁구 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IT분야 선두 주자인 KAIST 경영대학의 명성에 걸맞게 e스포츠 대회도 열렸다. 여기에 International Food Contest, 도전 카이스트 벨, 림보, 복면가왕 노래 대결, 주크박스 공연까지 더해 축제는 더욱 풍성해졌다. 탁구 대회는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총 5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 결승전에서는 TMBA 16학번팀과 외국인 학생팀(Team SAM)의 접전이 펼쳐졌고, 우승의 영광은 TMBA 16학번팀이 차지했다. 3:3 농구 대회의 결승전은 외국인 교환학생팀들끼리 최종으로 붙었는데, 결승전에 참여한 여성 선수가 놀라운 실력을 뽐내어 경기의 매력을 더해 주기도 했다. 같은 시각 스포츠 경영관은 e스포츠 대회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엔 처음 시도된 e스포츠 대회의 공식 종목은 '스타크래프트'였는데, 참가 신청이 폭주해 사전 예선전을 진행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축제 당일엔 선별된 5개 팀이 결선을 치렀고 심판 인원으로는 3명이 투입될 정도로 진지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었다.

각양각색 문화의 맛

해가 저물고 나서는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올라, 아트리움으로 많은 학생이 모여들었다. 아트리움의 은은한 조명은 평소와 사뭇 다르게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포토월에 서서 각양각색의 액세서리들을 두른 채 개성 넘치는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양한 이벤트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아트리움 한쪽에서는 International Food Contest가 진행되었다. 에콰도르의 상그리아, 마카오의 피쉬볼, 스위스의 파스타&초콜릿과 같은 다국적 요리들이 맛을 뽐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요리를 시식한 후 투표하기도 했다. 최종 우승자는 에콰도르 상그리아 팀이 차지했다.

KAIST 경영대학 재학생들, 팔방미인의 끼를 펼치다

이어지는 복면가왕 노래 대결에서는 회기동 토마토, 홍길동 공각지, 교수님은 모르실까야, 쿡푸팬

더 등 재기 넘치는 닉네임의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관객의 오감을 자극했다. 복면가왕의 우승은 우즈베키스탄의 Madina Nigmatova 학생(금융MBA 17학번)이 차지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가 가득했던 KAISTVAL은 KAIST 경영대학이 자랑하는 교내 밴드 '주크박스'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KAISTVAL을 기획한 17대 학생회장단의 이현성 학생(TMBA 17학번)은 "이번 축제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벤트들로 준비하여 학생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는데, 다행히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즐거워해서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공부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팔방미인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던 'KAISTVAL' 축제였다.



KAIST, KAIST, Beyond Knowledge!

2018년도 KAIST 경영대학 신입생 워크숍,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하다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2018년도 신입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신입생 외에도 25명의 재학생 멘토, 경영대학 교수진, 직원 등이 참석하여 KAIST라는 이름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짧지만 뜨거웠던 그 1박2일의 열기를 전한다.

2일 오전 11시,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의 신입생들이 YBM 홀에 집결했다. 이인무 경영공학부장의 환영사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이어 김영걸 교수가 'Learn to Lead!'라는 제목의 미니 강의로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펼쳐질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경영학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선서식이 있었고 이어서 윤관용 학생회장의 학생회 및 동아리 소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멘토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이번 워크숍 구호인 "KAIST, KAIST, Beyond Knowledge!"를 외치는 것으로 오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신입생들은 1박 2일 동안 전공과 국적이 섞인 10개의 조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오전 행사 후 첫 조별 모임이 이루어졌고 조원들은 각자 소개에 이어 조장을 선출하고 팀명, 구호 등을 정하며 어색함을 덜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는 컨벤션 홀에서 Team Building 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가건설팀 박상우 팀장의 진행에 따라 신입생들은 조별로 다른 색상의 조끼를 입고 간단한 몸풀기와 레크리에이션으로 팀워크를 다졌다. 이어 첫 번째 조별 미션을 수행하였는데, 미션은 8개의 게임을 제한된 시간 내 주어진 금액으로 수행하고 세션 종료 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모으는 것이었다. 퀴즈 풀기, 일심동체로 움직이기, 단체 구 튀기기 등 협동력을 기르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조원들 사이에는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저녁 6시부터는 컨벤션 홀에서 만찬 행사가 있었다. 재학생 멘토들이 홀 입구에 서서 입장하는 신입생과 교수들을 박수와 환호로 열렬히 환영했다. 신입생들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경영대학 밴드 '주크박스'와 KAIST



응원단 '엘카'의 신나는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본 워크숍의 두 번째 조별 미션은 Role Play였다. 'KAIST in 2028'이라는 제목으로 10년 후의 KAIST를 춤, 노래,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하여 5분짜리 상황극으로 표현하는 것만을 마친 신입생들은 조별로 모여 한 시간 반 동안 다음날 오전에 있을 발표를 준비하였다. 이어서 오후 9시부터는 전공별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전공별로 교수 및 재학생 멘토들을 만나 학교생활에 대하여 현실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오전 9시, Role Play 발표가 진행되었다. 인공지능, 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와 접목하여 KAIST의

미래를 표현하는 등 신입생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고 KAIST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Role Play는 이인무 경영공학부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평가하였다. 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4개 조와 조별 베스트 신입생, 워크숍 최다 참석 전공 등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윤여선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경영공학 18학번 박지우 학생은 "워크숍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학교에서 많이 준비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전공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오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18학번 KAIST 경영대학원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한마음 한뜻, 우리는 하나!

2017년 홈커밍데이와 창업어워드 시상식

2017년 11월 23일, 홈커밍데이 행사에 KAIST 경영대학 동문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동문회에서 주최한 ‘창업 어워드 KAIST 홍릉 2017’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번 KAIST 경영대학인은 영원한 KAIST 경영대학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7 홈커밍데이 행사는 공교롭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날에 진행되었다.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추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졸업한 테크노MBA 1기 동문부터 2017년 2월에 갓 졸업한 동문까지 많은 선후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행사는 권재중 동문회장(테크노MBA 95학번)의 학교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희석 교수는 ‘한번 카이스트 경영대학인은 영원한 카이스트 경영대학인’임을 강조하며 ‘카이스트를 배신하면 죽음이다! 카이스트에 충성하면 행복하다!’라는 의미의 ‘카배죽-카충행’의 재미있는 건배사를 제의하여 행사 전반부터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네트워킹 시간 후에는 막간 이벤트로 졸업 20주년 기수(95학번)와 졸업 10주년 기수(05학번)를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다. 테크노MBA 17(95학번) 동문들은 특별히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 기부를 약정하여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대표로 단상 위에 선 최규열 동문은 “KAIST 경영대학 출신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졸업 20주년을 맞아 이에 보답하고자 동기들끼리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경영대학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영대학 SUPEX 경영관에 ‘테크노MBA 1기 강의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창업어워드 KAIST 홍릉 2017 시상식

이어서 창업어워드 시상식이 있었다. 창업문화 조성 및 KAIST 경영대학 출신 유니콘 기업 창출에 목적을 두고 2017년 처음 동문회가 주관한 ‘창업 어워드 KAIST 홍릉 2017’에는 총 36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해 4월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발표 심사까지 진행했는데, 5가지 주요 심사 기준(기술 창업, 시장규모와 성장률, 기술의 차별성 및 신규성, 핵심인력 역량 및 기업가정신, 지속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최종 5개의 우수팀이 선정되어 행사에 참석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권재중 동문회장은 “참여한 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랐다”라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5개 우수팀과 창업 내용 및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창업 내용 및 수상 내역

구분 및 상금	사업명	팀 대표
대상 (500만원)	주식회사 프로메테우스	배강민 (전기전자공학부 14학번)
우수상 (200만원)	Size Advisor	유재원 (사회적기업가 MBA 17학번)
장려상 (100만원)	패치형 상병 진단 키트	민남기 (생명화학 공학과 15학번)
	New Raw	송재오 (정보미디어 MBA 17학번)
	AnyFont	조경제 (전산학부 13학번)

2017 올해의 동문상 및 교수상

다음으로 ‘올해의 동문상’과 ‘올해의 교수상’을 시상했다. 매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다섯 개 부문(Executive, IT 경영, 경영공학, 금융, 기술경영)에 대해 각 부문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KAIST 경영대학과 동문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해 ‘올해의 동문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인 교수와 탁월한 강의로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에 공헌한 교수를 선정하여 ‘올해의 교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각 부문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2017 올해의 동문상

부문	수상자
Executive	조성형 동문(이그제큐티브MBA 04학번)
IT 경영	서흥원 동문(정보경영 13학번)
경영공학	박기우 동문(경영공학 93학번)
금융	윤주영 동문(금융MBA 99학번)
기술경영	홍준기 동문(테크노MBA 95학번)

2017 올해의 교수상

부문	수상자
우수 연구	박광우 교수
우수 교육	이창양 교수

‘올해의 동문상’ 기술경영 부문 수상자인 홍준기 동문은 “졸업 2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귀한 상

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올해의 교수상’ 우수 교육 부문 수상자인 이창양 교수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잘 되는 것이 학교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며 졸업 후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걸 KAIST 발전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자선경매 및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여러 동문 및 교수들이 다양한 물품을 후원했으며 경품 또한 푸짐하게 준비되어 많은 동문들의 열광적인 호응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시종일관 웃음으로 가득 찼던 홈커밍데이는 이로써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위) 올해의 동문상 수상자
아래) 창업어워드 수상자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4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성료

지난 11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KAIST 녹색성장대학원과 (사)우리들의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새로운 모멘텀과 지속 가능한 미래(Creating New Momentum for Paris Agreement and Sustainable Future)'로, 파리협약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4)를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행사는 ▲2020년 새로운 기후 체제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에너지 대전환 전략 ▲동북아 슈퍼그리드 현안과 전략 ▲에너지전환을 위한 그린 파이낸스 ▲스마트 그린시티와 뉴 모빌리티 등 다섯 개 세션 및 ▲지속 가능한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의 KAIST의 특별세션으로 이뤄졌다. 신성철 KAIST 총장의 개막사로 시작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이끈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하워드 뱀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총장 등 기후-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리더 4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해 국제협력 우선해야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지만 아직은 세계 주요 리더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제는 협력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GCF 송도 유치 당시 인천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철학으로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몽골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까지 전력을 잇는 전력망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를 연결하고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혈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강자, 중국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동안 중국은 기후변화 분야의 리더를 자처하고 나섰다. 양 푸치양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수석 고문은 “중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기후변화 국제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개도국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녹색금융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UN의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공공에서 민간으로

녹색금융에 대해서는 공공 중심인 현 체제에서 민간 중심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파르하드 타기자데 헤사리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전기료 수익을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발전기관에 대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효과뿐 아니라 세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원원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뱀지 GCF 사무총장은 2020년까지 연간 천억 달러의 예산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처는 부담이 아닌 새로운 투자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고등교육의 변화 필요

KAIST 특별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준호 기계공학과 석좌교수는 고등교육 성공의 여부가 중등교육에 달려있으며 정량화된 점수에 치중하는 현행 교육을 지적했다. 김준동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론 문화가 꽃 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영환 KAIST 녹색성장대학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콘퍼런스였다”라고 말했다.

홍릉에서 배운 금융지식,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다

2017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

‘2017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가 지난 12월 15일 KAIST 경영대학 홍릉 캠퍼스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금융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MBA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동문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업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지식 나눔과 네트워킹의 장’이다.



자국 금융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다

금융MBA 소속 4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인구 교수의 개회사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박사의 특별 강의 세션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2018년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곧이어 본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졸업 동문 Case Study’ 세션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금융전문대학원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국의 금융산업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Essay Competition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최종 두 명의 동문을 선발했고, 이번 콘퍼런스에 연사로 초청했다. 첫 번째 수상 영감은 Dilshod Inamov(금융MBA 15학번)가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 이스텍 그룹에서 Project Manager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인무 교수의 기업재무 강의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자국 건축자재 사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응용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는 특히 재학 시절 “You are the leader in our society”라는 김지수 교수의 격려에 힘을 얻었고 자국으로 돌아가 금융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에콰도르의 Jessica Andrea Bolanos Badillo(금융MBA 14학번) 동문이었다. 에콰도르 중앙은행 National Director로 근무 중인 그는 “재학 시절 25개국의 학생과 나눈 유익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에 관한 톨을 만들어 현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KAIST Finance MBA, Leaders of the Financial Industry

두 명의 수상자는 모두 “KAIST의 일원임이 자랑

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Dilshod 동문은 김지수, 김주훈 교수에게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상을 직접 입혀 주고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현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제3회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는 이렇게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리더’가 되는 의미를 나눈 따뜻한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강동인(기술경영학부 박사과정), 정재용 교수
기술경영경제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김동석 교수, 이재규 명예교수
2018 알버트 넬슨 마퀴즈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Achievement Award) 수상

김원준 교수 MOT 10주년 포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상 수상

문송천 명예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훈

박지용(경영공학 박사과정), 이병태 교수, 한건수 교수(McGill University)
MIS분야 국제학술대회 INFORMS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IST)에서 Best Student Paper Runner-Up 상 수상

윤명해, 정호연(녹색경영정책 석사)
외교부 주최, 세종연구소 주관 제4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이종묵(이그제큐티브MBA)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수행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가 큰 세계 전문가들에게 수여하는 IEC 1906 Award 수상

조용환(기술경영학부 박사과정), 김지희 교수, Francisco Santos (NHH)
한국재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정재용 교수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표창(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황성하 교수 제36회 다산경제학상 중 제6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KAIST 경영대학, 아시아·태평양 지역 'WRDS-SSRN Innovation Award' 수상

지난 10월 26일, KAIST 경영대학이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콘퍼런스에서 'WRDS-SSRN 이노베이션 상'을 받았다.

'WRDS-SSRN 이노베이션 상'은 와튼 스쿨의 데이터 분석 및 금융 연구 플랫폼 WRDS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을 제공하는 연구네트워크 SSRN가 협력해 만들었다.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연구 논문 실적 및 인용 횟수 등을 기준으로 연구의 혁신 및 우수성이 뛰어난 대학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KAIST 경영대학이 선정됐다.



이진주 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세미나 개최, 강종길 AVM 1기 동문 '혁신 및 기업가정신 연구센터'에 1천만원 기부

지난 10월 23일, 이진주 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세미나가 KAIST 경영대학 9호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KAIST 기술사회연구실(STS) 동문회와 혁신 및 기업가정신 연구센터(CIE)에서 주관했다. 1부 추모식에서는 '이진주 교수님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졸업생 대표 이상진 박사의 인사, 이진주 교수의 업적 소개, 참석자들의 회고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진주 교수의 부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부 추모 세미나는 '혁신과 가치'를 주제로 이진주 교수의 제자인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현영석 한국린 경영연구소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 최동규 한라대학교 교수, 배종태 KAIST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에프투인베스트먼트의 강종길 대표 이사(AVM 1기 동문)는 이번 추모 행사를 기념해 '혁신 및 기업가정신 연구센터'에 1천만원을 기부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글로벌리더과정(GLP) 총동문회 발족



지난 11월 10일,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KAIST 글로벌리더과정(GLP)이 총동문회를 발족했다. GLP 과정은 KAIST 경영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공동 개설한 국내 최고의 공공기관 맞춤형 글로벌리더십 교육과정으로 불합기는 KAIST 경영대학에서, 나머지 가을하기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UCI)에서 수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학기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GLP 과정은 동기애가 각별하기에 이번 총동문회 발족 모임에는 지방에서도 많은 동문이 올라와 참여할 만큼 호응이 좋았다. 여러 기수가 모여 인사를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도 총동문회 주관 하에 많은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재학생 대상 International Day 행사 개최

지난 11월 24일, 외국인 교환학생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도 배우면서 서로 네트워킹하는 International Day 행사를 SUPEX경영관 최종현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특별히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국인 학생들이 태권도 기본 동작부터 합판 격파까지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 예절을 통해 한국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만족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7 녹색성장대학원 학생 연구발표회 개최

지난 12월 28일, KAIST 경영대학 최종현홀에서 2017 녹색성장대학원 학생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본 행사는 매년 녹색성장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녹색성장대학원 재학생, 교수진, 2018년도 신입생, 외부 참석 희망자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72개의 관련 연구를 발표하고 그 중 6개의 연구에 대한 녹색 사례 및 우수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KAIST 경영대학-삼성SDS 산학협력 MOU 체결

지난 2월 19일 KAIST 경영대학은 삼성SDS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강화와 관련 교육의 활성화, 공동 연구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SDS는 KAIST 경영대학 MBA 과정의 Analytics 관련 과목과 캡스톤 프로젝트에 삼성SDS가 보유한 AI 기반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Brightics) AI'를 제공하기로 했다. KAIST 김영배 경영대학장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연구 및 정보교류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경영전문가를 집중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 멘토링 프로그램 Final Meeting 개최

지난 12월 6일, 이태원 소셜 테이بل에서 '2017 멘토링 프로그램 Final Meeting'을 개최했다. 2009년 마케팅-취업지원실 주관으로 시작한 KAIST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재학생이 학교생활 중 경력개발을 넘어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동문 및 재학생 간 깊이 있는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멘토 및 멘티로 활동한 여러 동문 및 재학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8 친환경 세미나를 개관식 행사 개최

지난 1월 19일, 녹색성장대학원에서 친환경 세미나를 개관식을 개최했다.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 학생들이 협업을 위한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대학원이 구축한 시설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배 KAIST 경영대학장, 인영환 녹색성장대학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교수진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8 KAIST 경영대학 학위 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4일 KAIST 경영대학 1호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10개 전공의 졸업생들이 참여하였고 2017년 8월 졸업생 64명, 2018년 2월 졸업생 255명, 총 319명의 졸업생이 학위 수여를 받게 되었다. 당일 권재중 동문회장(케이런벤처스 대표, TMBA 95학번)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KAIST 경영대학 출신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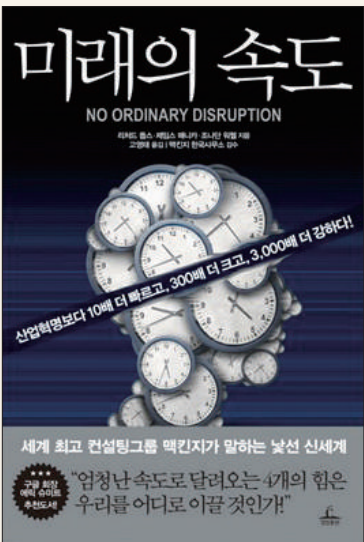
미래의 속도

리처드 돕스, 제임스 매니카, 조나단 워첼 저, 청림출판

경영공학 석사 17학번 김연서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 그런데 기술은 그 시간의 일정한 흐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 변화의 근본은 어디서 오며,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이 책은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5년간의 심층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미래의 가장 큰 변화는 1) 신흥국의 도시화, 2) 기술의 속도, 3) 고령화의 역설, 4) 글로벌 커넥션의 확대이다. 이 4가지 변화 모두 사회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변화 자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사회를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주요 변화들의 이면에서 신기하게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에너지, 환경 그리고 자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그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눈에서는 태풍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알 수 없듯,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은 자신들이 일으킨 변화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어리석게도 쉬이 간과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단기적인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 긴 시간의 흐름을 거쳐오는 큰 변화에는 둔감한 걸까? 닿을 거리에 있는 파도에는 휩쓸리지 않고 탈지 언정, 저 멀리 다가오는 집재만 한 파도를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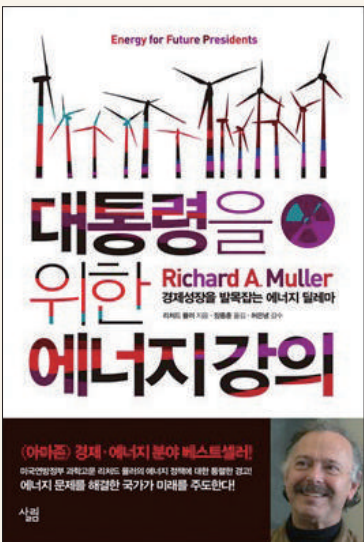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Richard A. Muller 저, 살림

프로페셔널 MBA 16학번 한정구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저자와 출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책을 팔겠다는 마음은 있는 것일까?”였다. 책을 다 읽은 지금도 ‘대통령을 위한’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거슬린다. 책의 내용은 에너지를 주제로 다룬 그 어떤 책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나, 반감을 줄 수 있는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여지없이 부쉬주는 책을 좋아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책이다. 저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면서 그 주된 피해가 사고의 원인인 방사능 유출이 아닌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100배나 더 컸음을 입증하면서 책의 서두를 시작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셰일오일, 합성 연료, 원자력, 바이오 연료, 청정연료 등 여러 에너지 종류의 태생과 역학관계 그리고 미래 가치 등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는 급격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등장으로 인해 몇 백 년을 누려온 화석연료의 패권이 흔들리고 산유국들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수송용 연료는 전기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책은 미래 에너지가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안혁(경영공학 석사 05학번) 저, 원앤원북스

금융공학 석사 16학번 이인후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하루에도 수많은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과연 실체가 없는 투기용 허상일까, 금과 달러를 대신할 미래의 화폐일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념을 이해하기도 힘든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퀀트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반 대중이 갈피조차 잡지 못하던 비트코인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한다.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를 기존 은행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또한 흔히 가상화폐라고 번역되는 Cryptocurrency를 암호 화폐(암호 Cryptograph와 화폐 Currency)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법정화폐가 될 수 없는 비트코인을 금본위제 폐지 이후 금을 대체할 ‘상품’으로 보고 있다. 금의 가치를 전부 대체한다면 1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8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1,300개가 넘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장기 투자전략으로 비트코인을 권한다. 암호 화폐(가상 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개념부터 경제학적 분석, 장기 투자 전략을 포함한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애니 레너드(Annie Leonard) 저, 김영사

녹색경영정책 석사 17학번 조수빈

우리가 쓰는 수많은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물건의 편의만을 누릴 뿐, 물건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고민하지 않는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는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과정을 ‘추출,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해 우리의 소비 행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저자인 애니 레너드는 계반소각로연맹, 그린피스 등에서 일하면서 20년 이상 물건, 소비, 환경의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쓰레기의 문제가 결국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물질 경제 시스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발로 뛰며 파헤친 진실을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물건은 그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약한 자의 노동력과 자본을 빼앗아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책에 따르면 이는 환경 비용이 물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생기는 환경 오염과 정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쉽게 버린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였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비는 건강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여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고-취하고-버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시장에서 강화된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글로벌 회계컨설팅펌, '삼일PwC의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 서비스' 업무 소개

최근 지속적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의 악화와 국내 건설 시장의 포화로 건설 업체들은 진출 지역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대응해 글로벌 회계컨설팅펌, 삼일PwC는 국제 수준의 전문가와 국내 기관의 개도국 개발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적 자금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자개발은행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환경·기후변화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신흥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출현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관련 사업을 이행하는 건설업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국제개발기구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작년 말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미얀마의 주요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카인주(Kayin State) 고속도로 사업을 임시 중단했다. 시공사인 중국 도로교량 건설회사(CRBC,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가 공사에 필요한 석회석을 채석하

는 과정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세계은행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의 건설 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계획이 적절하지 않거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사업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과 캐나다 수출진흥청도 칠레의 파스쿠아 라마(Pascua Lama)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수자원 문제 등 막대한 환경 부하가 발생하자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² 시장에 붙고 있는 환경, 사회 이슈의 중요성

세계은행과 다자개발은행은 오래전부터 기업에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초기 제안부

터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최종 준공까지 사업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사업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며,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표준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SS,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라고 부른다. 관련 대표 가이드라인으로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8대 성과 표준(PS, Performance Standards)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표준의 이행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과거 최빈국의 위치에서 주요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 기준을 준수해 해외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표준 이행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삼일PwC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서비스팀 리더 박재흠 파트너 (환경경영정책 석사 02학번)

환경·사회적 이슈관리능력은 '필수'를 넘어 '숙명'

2013년 12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인천 송도에 유치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현재까지 총 18번의 이사회를 통해 재원을 조성(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조성 목표)하는 한편, 사업 운영 모델 등 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KDB)이 현재 유일하게 이행 기구로 인증받은 상태다. 인증 요건에서 주목할 점은 기금에 대한 수탁관리기준(FS, Fiduciary Standards) 이행 능력과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대한 관리역량평가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된 후에도 GCF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활동의 점검 및 개선 활동 등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필자가 몸담은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 서비스 팀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대응해 국제 수준의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와 수행 분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기관들의 개도국 개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GCF 인증 기구(AE, Accredited Entities) 관련 국내 기관의 업무 지원, 국내외 기관의 GCF 사업제안서 작성(Funding Proposal), GCF 이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여러 국내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삼일 PwC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국내: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climate-change.html>, 해외: <https://www.pwc.com/gx/en/services/sustainability/contacts.html>)

¹ 다자개발은행 다자개발은행이란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or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or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컫음.
² 공적개발원조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함.

배움을 함께 나눈 선후배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이준 & 김수진 부부 (정보미디어MBA 15, 16학번)

변리사이자 스타트업 경영인과 뷰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KAIST 경영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하다! 범상치 않은 이력만큼이나 매력 넘치는 이준, 김수진 동문 부부를 만나보았다.



KAIST 경영대학 가족께 두 분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준 동문 정보미디어 MBA(이하 IMMBA) 15학번 이준입니다. 저는 해운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면서 탐생이라는 교육 스타트업의 사내이사, 그리고 매쉬업엔젤스 투자자문역이라는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동문 정보미디어 MBA 16학번 김수진입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15년도부터 Miss Daisy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뷰티 콘텐츠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유튜버라는 두 분의 배경이 남다른데요. 두 분께서 KAIST 정보미디어 MBA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준 동문 변리사는 전문직이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경직된 면도 있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다. 그러던 중, 교육 관련 스타트업에 참여하면서, 경영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MBA에 진학했습니다.

김수진 동문 원래는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비즈니스의 본질에 부합한 경영 마인드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비즈니스 환경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KAIST IMMBA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타 MBA와는 다르게 1년 과정인 IMMBA는 학년 이 다른 선후배가 재학 기간 중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두 분께서는 처음 어떻게 만나셨나요?

김수진 동문 처음 만난 것은 IMMBA 입학 설명회였습니다. 당시 Q&A 시간에 재학생이었던 남편이 제 질문에 답해주었는데요. 학교 입학 전 궁금한 게 많았던 저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준 동문 그때 질문하셨던 분이 너무 예뻐서(웃음), 꼭 다시 뵙고 싶은 마음에 저도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년도 신입생 환영회에 졸업생으로 인사를 갔는데 그때 지금의 아내가 있더라



고요. 잘 알아본 아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두 분의 일화를 들려주세요.

이준 동문 IMMBA 과정 특화 과목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 있는데요. 이 과목의 난이도와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디자인을 전공한 아내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과목이라 먼저 졸업한 제가 도와주면서 함께 공부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동문 공부가 벅찼지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재미있었고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분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준 동문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며 일

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서 결국 큰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성취를 통해 제 바운더리를 넓히고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수진 동문** ‘변화를 주도하라’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그 누구의 응원도,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변화를 믿고 전진하는 것, 비즈니스의 본질적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준&김수진 동문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목표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동문을 볼 때마다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KAIST 경영대학의 동문 모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각자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이로 인해 동문 간의 연결고리도 더욱 튼튼해졌으면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은 시도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 곳입니다

경동나비엔 홍준기 부회장(테크노MBA 95학번, 1기)

국내 선두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여 2억불 수출 기업 반열에 올랐다. 경동나비엔의 성장을 진두지휘하는 부회장이자 KAIST 경영대학 테크노MBA 1기 졸업생인 홍준기 동문을 만나봤다.

경동나비엔과 부회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테크노MBA 1기 졸업생 홍준기입니다. 재직 중인 경동나비엔은 국가대표 보일러로 알려진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국내 보일러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60%를 초과할 정도로 미국, 러시아 등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6,800억 정도이지만 연구소 인력만 290명 정도를 갖춘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입니다.

지난 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경동나비엔의 해외 매출이 2년 전 대비 22%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웨이 대표이사 시절에도 재임 7년간 코웨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신 바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품질과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품질과 서비스가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간과합니다. 전통적으로 나비엔이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도 훌륭한 품질 때문인데, 경쟁사들이 우리 제품을 뜯어보고 벤치마킹할 정도였죠. 우수한 기술뿐 아니라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도 나비엔의 비결입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뿐 아니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통해 ‘팔지 않아도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는데 지난해에 1년 만에 2억불탑을 달성했어요. 올해는 3억불탑이 목표입니다.

제품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열린 기업문화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쓴 이유는 직장 경험 때문이었어요. 일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닫힌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상명하복 문화 등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꿀지 고민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직원에게 창의성과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포장마차입니다. 업무 후 저녁 식사와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죠. 일반 호프집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테이블도 작아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제격입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웃음) 또 집이 멀어서 회사에 일찍 오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간단한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근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것이죠.

지난해 졸업 20주년을 맞이해 홀커밍데이에서 ‘올해의 동문상’을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1995년도에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했는데 졸업하고 벌써 2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당시 재직 중이던 삼성그룹에서 전 계열사 중 60명을 선발해 TMBA 과정에 보냈습니다. 전일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대전으로 이사했습

니다. 특히나 현업에서 13년을 있다가 대학 생활을 다시 하게 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TMBA 1기들과는 아주 돈독한 사이이며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TMBA 1기 동문들이 1억원을 기부했는데 부회장님께서 특히 1천만원을 기부하셨습니까. 기부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MBA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자로서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었고 아마 연구소에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 KAIST입니다. 그런 고마움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권재중 동문회장이 졸업 20주년을 기념해서 TMBA 1기가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어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TMBA 1기 졸업생으로서, 경영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 목표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다르니까요. 단지 월급 더 받고 CEO를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돼야 하고,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직급이 낮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하는 CEO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사람이 CEO가 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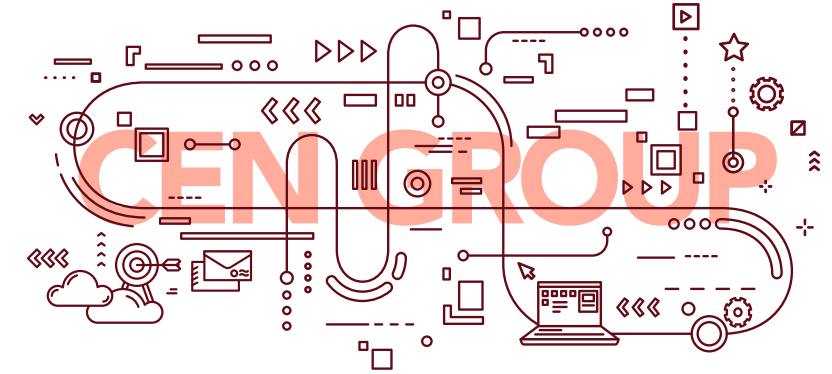
SI 사업 전문 경영인, 이충환 아이티센 대표를 만나다

아이티센 이충환 대표(최고경영자과정 19기, 2011년 졸업)

1988년 동양시멘트 입사부터 현재 아이티센의 대표까지 30여 년의 경력 동안
SI 사업 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경영인, 이충환 대표를 만났다.



조직 구성원, 크게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에 더욱 큰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KAIST
동문들에게 중요하고 또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3년 최고경영자과정(이하 AIM) 19기로 입학한 이충환입니다. 1988년 동양시멘트에 입사해 1992년 동양시스템즈로 옮기고 2012년 대표이사를 맡은 후, 2013년 대우정보시스템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지금의 아이티센은 2016년 4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아이티센은 센그룹(CEN GROUP)의 자회사로 IT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System Integration(SI) 기업입니다. 특히 대형 국가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세청 등 공공기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KAIST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선택했던 이유와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입학했던 2003년은 동양시스템즈에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당시는 IT 붐으로 본격적으로 국내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IT 회사에서 경영관리 직군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와 전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AIM 과정을 통해 경영과 기술 두 측면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때 경험이 이후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사회 각계의 좋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과정을 마치고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여러 동문 및 교수님들과 연을 계속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아이티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성과를 위해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든 성공의 경험, 성공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 무모하다는 일을 성취해냈을 때의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회사에 취임한 후, 조직 구조조정보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시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구성원 모두가 이 같은 뜻을 이해하고 합심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조직에서도 이런 경험과 상호 신뢰를 갖춘다면 얼마든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차별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티센의 공공 IT 서비스 사업의 현안은 무엇이며, 대표님께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IT 이슈 'ICBM'입니다. ICBM이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을 통칭하는 약자입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조직이나 최신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센그룹은 ICBM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계열사들이 존재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센은 센그룹 각 계열사의 사업 역량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국가 기간망, 특히 Smart Airport, Smart City, 국가 재난망 등의 구축을 차기 사업 목표로 합니다. 향후 IT 산업 분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블록체인을 통한 보안 및 분산 네트워크가 향후 시장에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동문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동양시스템즈의 대표로 처음 취임했을 때 제가 사원 모두에게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세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감정이 섞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만큼은 직원을 존대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실행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조직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KAIST 경영대학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지녔으면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크게는 사회의 구성원에 관심을 두고, 사회에 더욱 큰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고 또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CB GIVING



KAIST 경영대학의 벤처창업 육성 위해 3억원 후원

**정재송 (주)제이스텍 대표이사, 박재규 (주)동아엘텍 대표이사 각 1억원 기부
이 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9만 달러 상당 주식 기부**

KAIST 경영대학의 벤처창업 교육·연구·지원을 위하여 정재송 (주)제이스텍 대표이사, 박재규 (주)동아엘텍 대표이사 각 1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정재송 대표이사, 박재규 대표이사는 최고벤처경영자과정(AVM)을 수료한 동문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후배 벤처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뜻을 함께 모았다. 더불어, 이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도 9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벤처 창업 교육에 힘을 보태 주었다. 실리온밸리에서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 교수는 과거 7개의 벤처를 NASDAQ에 상장시킨 바 있으며 현재 KAIST 경영대학에서 발전위원이자 '지식 기부자'로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지도 중인 성주희 대표(SE MBA 15학번)의 사업 '더클로젯'이 은행관청년창업재단 디캠프 경연에서 우승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영배 KAIST 경영대학장은 "기부금은 벤처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활동에도 사용될 예정"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KAIST 경영대학인에게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KAIST 경영대학은 머리를 깨우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김도형 동문 (테크노MBA 99학번, 5기) 1천만원 기부

KAIST 경영대학 가족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테크노MBA 5기 졸업생으로 한민희 교수님 랩에서 수학한 김도형입니다. 졸업 후에는 Accenture, SK Telecom, SK E&S를 거쳐서 현재는 증권 제약사인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이번엔 1천만원을 기부해주셨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재학 당시 저는 학부를 막 졸업하고 진학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3학기 동안 베풀어 주신 장학금이 과정을 이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은혜를 학교에 되돌려주고 또 후배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 전액과 약 20년 동안의 이자를 더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민희 교수님께서 교편을 정리하시는 시점이 되어 그간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교수님의 성함으로 기부했습니다.

동문과 기부자로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실력과 열정은 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성공의 밑거름이 돼서 추후에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다면 그것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한민희 교수님과 추억, 동기들과의 추억 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TMBA 과정을 중도에 포기할까 고민하다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교수님께서서는 모 그룹의 총수를 예로 드시며, 그분의 성공 이면에는 '은사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감명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처럼 나중에 성공하면 '한민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교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해봅니다.



왼쪽 두번째 김도형 동문(테크노MBA 99학번, 5기)

KAIST 경영대학은 동문님의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자문한다면 저는 꼭 KAIST 경영대학 재학시절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당시 치열한 환경에서 서바이벌했다는 사실을 밀친 삼아 재기하기도 했고요. KAIST 경영대학은 머리를 깨우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재학생 후배분들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통섭적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영자 육성 플랫폼이 KAIST 경영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청춘을 배팅해서 인생 모험을 떠나는 진정한 '프론티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 20주년을 맞은 테크노MBA 95학번(1기), 1억원을 기부하다

‘테크노MBA 1기 강의실’ 명명식 개최

2017년 홈커밍데이에서 졸업 20주년을 맞은 TMBA 1기(95학번) 동문들이 KAIST 경영대학에 1억원을 기부했고, SUPLEX 경영관 102호 강의실을 '테크노MBA 1기 강의실'로 지정하는 명명식이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기부에 참여한 TMBA 1기 동문을 비롯해 TMBA 1기를 지도했던 안병훈, 박성주, 김지수 명예교수도 참석하여 졸업 후에도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조남성 동문은 "학교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도 하고 강의실에 TMBA 1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이어 김영배 경영대학장과 안병훈 명예교수가 명명 축하 및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TMBA 1기 기부자 대표로 최규열 동문을 만나보았다.

KAIST 경영대학 가족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TMBA 1기 졸업생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대전 캠퍼스에서 공부했고, 현재 (주)글로벌드텍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IoT와 전기자동차 충전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홈커밍데이에서 TMBA 1기 동문 분들께서 1억원을 기부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졸업 후 20년 동안 TMBA 1기의 모든 동기들이 KAIST 경영대학 출신으로써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동문이라는 혜택을 화수분처럼 사용했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학장님께서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TMBA 1기 동기 분들은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TMBA 1기 동기들은 졸업 후 2명의 삼성그룹 사장, 유수의 중견기업 대표와 공공기관장, 건설한 중소기업 대표 등 산업계의 주요 리더로서 성장했고, 이러한 결과에 자양분 역할을 한 학교에 대한 애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동기들 간의 특별한 우애도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하기에, 학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공과 학업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동문의 학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동기 못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 20주년이 되어서야 자그마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른 동문들은 조금 더 일찍 학교에 대한 애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동문들의 자부심도 함께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홈커밍데이나 총동문회 같은 행사가 많은 분들의 참여로 동문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른쪽 최규열 동문 (테크노MBA 95학번, 1기)

김현철 동문(이그제큐티브MBA 07학번, 4기) EMBA 총동문회에 1억원 기부

김현철 동문이 EMBA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EMBA 총동문 송년의 밤' 행사에서 1억원을 기부했다. "EMBA는 동문간의 끈끈한 네트워크와 결속력을 자랑하는 전공이다. 졸업한지 10년 가까이 되는 EMBA 4기도 현재까지 깊은 우애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총동문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현재 김현철 동문은 HK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로, HK 네트워크는 스마트 IoT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왼쪽 신성철 KAIST 총장, 오른쪽 김현철 동문(이그제큐티브MBA 07학번, 4기)

KCB GIVING

<발전 기금 기부 현황>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2018년 2월)



개인기부

※ 괄호 안 숫자는 입학년도(학위) 또는 기수(비학위)

<일반 기부>

김현철 EMBA(2007) 100,000,000원
박재규 AVM(7기) 100,000,000원
이인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수 \$90,000 상당 주식 기부
정재송 AVM(2기) 100,000,000원
테크노MBA 1기 1억원 기부로 102 강의실 명명
AIM 47기 15,000,000원
강종길 AVM(17기) 10,000,000원
김도형 TMBA(1999) 10,000,000원
조남성 TMBA(1995) 10,000,000원
홍준기 TMBA(1995) 10,000,000원
권재중 TMBA(1995) 5,000,000원
양진영 TMBA(1995) 5,000,000원
홍사관 TMBA(1995) 5,000,000원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3,000,000원
김병철 TMBA(1995) 3,000,000원
이규남 TMBA(1995) 3,000,000원
장진화 TMBA(1995) 2,500,000원
고정석 TMBA(1995) 2,000,000원
이원근 TMBA(1995) 2,000,000원
천정철 TMBA(1995) 2,000,000원
강병석 TMBA(1995) 1,200,000원
김택현 TMBA(1995) 1,000,000원
박상용 TMBA(1995) 1,000,000원
이영권 TMBA(1995) 1,000,000원
주현 EMBA(2007) 600,000원
정태교 TMBA(1995) 300,000원
김수진 정보미디어MBA(2016) 300,000원
강명우 FMBA(2012) 176,000원
백승훈 금융전공(2010) 100,000원

<MBA 후배사랑 장학금>

구윤모 TMBA(2010) 동문 60,000원

<경영공학 후배사랑 장학금>

김영배 ME(박1980) 동문 6,000,000원
한인구 ME(석1979) 동문 600,000원
권순범 ME(박1988) 동문 600,000원
차종석 ME(박1993) 동문 600,000원
차민석 ME(박1999) 동문 350,000원
김도훈 ME(박1995) 동문 300,000원
고준 ME(박1998) 동문 300,000원
이대우 ME(석1995) 동문 180,000원
윤주영 ME(박2003) 동문 90,000원
이상원 ME(박2002) 동문 60,000원
최소영 ME(석2014) 동문 60,000원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 교원 141구좌

고우화, 권영선, 권오규, 김동석, 김민기, 김상협, 김영걸, 김재철, 김중창, 김주훈, 김태현, 류충렬, 박건수, 박광우, 박병호, 박상찬, 배중태, 백윤석, 변석준, 안재현, 엄지용, 오원석, 이규석, 이병태, 이윤신, 이인무, 이지환, 이찬진, 이희석, 인영환, 장세진, 정재민, 조대곤, 진병채, 홍인기

■ 직원 33구좌

김원식, 김학기, 김행란, 김혁순, 마세영, 문현경, 박효진, 서민채, 신명철, 신재용, 오성지, 유은진, 윤미자, 이지은, 이진영, 이항숙, 이혜란, 장계영, 장문혜, 정나래, 주선희, 지주희, 최서영

■ 학부모 12구좌

김현민, 박수용, 이문환

■ 일반 21구좌

강상국, 김영아, 김은영, 김정호, 김하림, 박종호, 심영선, 정규상, 최정민

■ 학위과정 동문

TMBA 97구좌 | 강병문(1995), 강병석(1995), 권재중(1995), 김재현(1995), 김춘석(1995), 양진영(1995), 오계동(1995), 이동근(1995), 장인환(1995), 천정철(1995), 최규열(1995), 최석윤(1999), 이재구(2001), 이은영(2003), 서찬우(2011), 오창화(2014), 윤영진(2014), 송재준(2015), 신상수(2015)
EMBA 83구좌 | 김중철(2005), 김진기(2005), 서종현(2005), 조남웅(2005), 성한호(2006), 유명희(2006), 유지찬(2006), 조성형(2006), 방선홍(2007), 이재성(2007), 문성훈(2009), 홍지중(2009), 김성엽(2011), 임한준(2011), 공정호(2013), 김성욱(2013), 신스캇(2013), 유승오(2013), 정승원(2013), 최길재(2013), 유영찬(2014), 배재영(2015), 오경주(2015), 이유(2015), 정대영(2015), 정유철(2015), 호오승(2015), 권오현(2016), 김현준(2016), 박인복(2016), 송보근(2016), 양성원(2016), 여준호(2016), 장승현(2016), 형인우(2016), 김정승(2018)

ME 35구좌 | 고정석(1980), 박영일(박1982), 신원준(박1994), 노정석(1994), 이길형(박1994), 김범수(1995), 박하진(박1995), 전수환(박1995), 김형수(박2002), 이상원(박2002), 류성한(박2010), 김지수(2013), 김형진(박2013)

PMBA 25구좌 | 강영대(2013), 고용협(2013), 윤상배(2013), 이찬삼(2013), 방창석(2014), 이현수(2014), 임영실(2014), 정순호(2014), 박이수(2015)

MIS 21구좌 | 권오훈(1996), 박정국(1997), 이박(1997), 한상철(1999), 김우택(2000), 유현재(2016)

MFE 18구좌 | 남홍용(1996), 서병기(1996), 조두희(1996), 허필석(1996), 이병호(1997), 고용식(1998), 차봉수(1999), 김동규(2013)

SEMBA 11구좌 | 김항석(2013), 임태열(2013), 정지연(2013), 임혜민(2014), 장능인(2014)

IMMBA 10구좌 | 김성균(2009), 허준(2009), 김성중(2015), 류혜원(2015), 박섯별(2015), 이세정(2015), 권정훈(2016)

IMMS 8구좌 | 마민철(2012), 정형주(2012), 양상근(2013), 장재승(2013), 권미애(2014), 김승현(2014)

FMBA 8구좌 | 이익주(1996), 신현수(2006), 김동광(2010), 김현일(2012)

학사과정 산업경영학과 3구좌 | 문정모(1992)

통신경영정책 2구좌 | 임재호(1997), 안성훈(1998)

IMBA 1구좌 | 김철민(2007)

■ 경영자과정 동문

AIM 89구좌 | 김주인(5), 강보영(12), 임대기(13), 박기준(14), 김부길(15), 김정완(15), 이종열(18), 전창근(18), 배동진(20), 김종남(21), 김덕표(23), 김광선(27), 정순철(30), 염민경(31), 장인수(32), 김덕신(44)

ATM 24구좌 | 박형기(10), 강보영(15), 김선희(15), 김덕표(17)

AIC 13구좌 | 김삼유(30), 김성규(30), 김종필(30), 박문선(30), 이수열(31)

신한은행-KAIST 기술금융고급과정 9구좌 | 강기철(2015), 김두현(2015), 김은희(2015), 남옥향(2015), 박병수(2015), 윤태호(2015), 이인선(2015), 이동수(2016), 이윤용(2016)
K-CEO 5구좌 | 이재윤(5)

S-OIL-KAIST Team Leader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3구좌 | 김영배(2015), 박성훈(2015), 하대일(2015)

삼성SDS-KAIST 기술경영 3구좌 | 김정현(2016), 한호전(2016), 전경수(2017)

KBM 1구좌 | 이홍열(2015)

사회적기업가과정 1구좌 | 최병수(2015)

<TEAM KAIST 월정액 후원 총 5구좌>
이영식 ME(1990), 황성식 ME(2000), 유종희 MFE(2011), 이혁성 기술경영전문대학원(2012), 김용준 기술경영학부(2014)

기업기부

행복나래주식회사, ㈜코스콤, ㈜코람코자산
㈜아프리카TV (KAIST 경영대학 인터넷 방송국 방송 별풍선 기부)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는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1666-3249
kcb.giving@kaist.ac.kr

KAIST 경영대학 정보경영 석사과정

IT경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2년 Part-time 석사과정

정보경영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 in Information Management)은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IT 기술 관련, IT 산업에 특화된 경영 인사이트와 비전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 2회(수요일 저녁, 토요일 전일) 진행되는 2년 Part-time 석사과정으로, IT기반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데이터 마이닝, IT 시스템 디자인 등 총 39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외에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 해외연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① 재직자를 위한 Part-time 석사과정
- ② IT경영 분야 재직자의 Career Upgrade를 위한 최적화 과정
- ③ 선진 IT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현장연구 실시
- ④ IT경영 분야 재직 중인 학생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산업과 학문의 시너지 창출

모집 2018년 4월 중

문의 정보경영 석사과정 사무실 02-958-3641

Email mechoi@kaist.ac.kr

Homepage www.business.kaist.ac.kr/ksim

